

# 항공

[www.airforce.mil.kr](http://www.airforce.mil.kr)



2005.9 / 제327호

창설 10돌!

하늘을 누비는 여섯 독수리, **블랙이글**



황우석 석좌교수 특별강연 '생명공학 기술과 미래의 삶'  
MBC 김정호 기자의 KF-16 체험기



창설 10돌을 맞이한 '블랙이글'



특집! 생각해 봅시다 - 황우석 석좌교수 특별강연 '생명공학 기술과 미래의 삶'



공군소식 II - 한국 최초 초음속 전투기 F-5A/B 고별 비행, 역사 속으로



Zoom In - 창설 반세기 · 전군 14년 맞이한 방공포병

2	참모총장 스케치
4	공군은 지금
	<b>특집! 생각해 봅시다</b>
8	황우석 석좌교수 특별강연 '생명공학 기술과 미래의 삶'
	<b>공군소식 I</b>
12	한국 최초 초음속 전투기 F-5A/B 고별 비행, 역사 속으로
	<b>공군소식 II</b>
14	공군군악대, 제주 국제관악제 참가
	<b>공군소식 III</b>
16	'서울에어쇼 2005' -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b>I Love Air Force</b>
17	MBC 김정호 기자의 KF-16 체험기
	<b>기획특집/공군도서관</b>
20	첨단 과학 공군의 파워는 도서관에서 나온다!
	<b>현장 속 현장</b>
23	창설 10돌! 하늘을 누비는 여섯 독수리, 블랙이글
	<b>Zoom In</b>
26	창설 반세기 · 전군 14년 맞이한 방공포병
	<b>세계의 항공무기</b>
30	이스라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Python 5
	<b>세계의 우주력</b>
32	차세대 우주기술의 집약체 소형위성
	<b>특별기고</b>
34	항공소년단 창설과 항공인들의 과제
	<b>생각하는 그림</b>
36	엘비스 프레슬리의 군 입대



테마가 있는 나들이  
영원한 「빨간 마후라」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을 찾아서

문화가 산책  
9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법률상식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방법

건강 365  
가을 운동, 발목 조심하세요!

장병기고  
“韓·美 동맹군 만찬과 한 편의 한국영화”

이미지의 Hollywood English  
두려움은 지혜를 두려워한다

마음으로 읽는 글  
아버지가 보신대!

영화 이야기  
인간과 첨단기계의 대결, '스텔스' (Stealth)

책 마을  
괴짜경제학

기상전망대  
9월, 낙엽을 기다리는 오솔길에서

독자의 소리  
다른 그림 찾기

보라매 단상  
알립니다

38



32  
세계의 우주력  
차세대 우주기술의 집약체 소년위성

41



38  
테마가 있는 나들이 - 영원한 「빨간 마후라」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42

44



44  
문화가 산책 -  
9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48

50



44  
건강 365 - 가을 운동, 발목 조심하세요!

52

54

55

56

59

60



52  
영화 이야기 -  
인간과 첨단기계의 대결, '스텔스' (Stealth)

# 참모총장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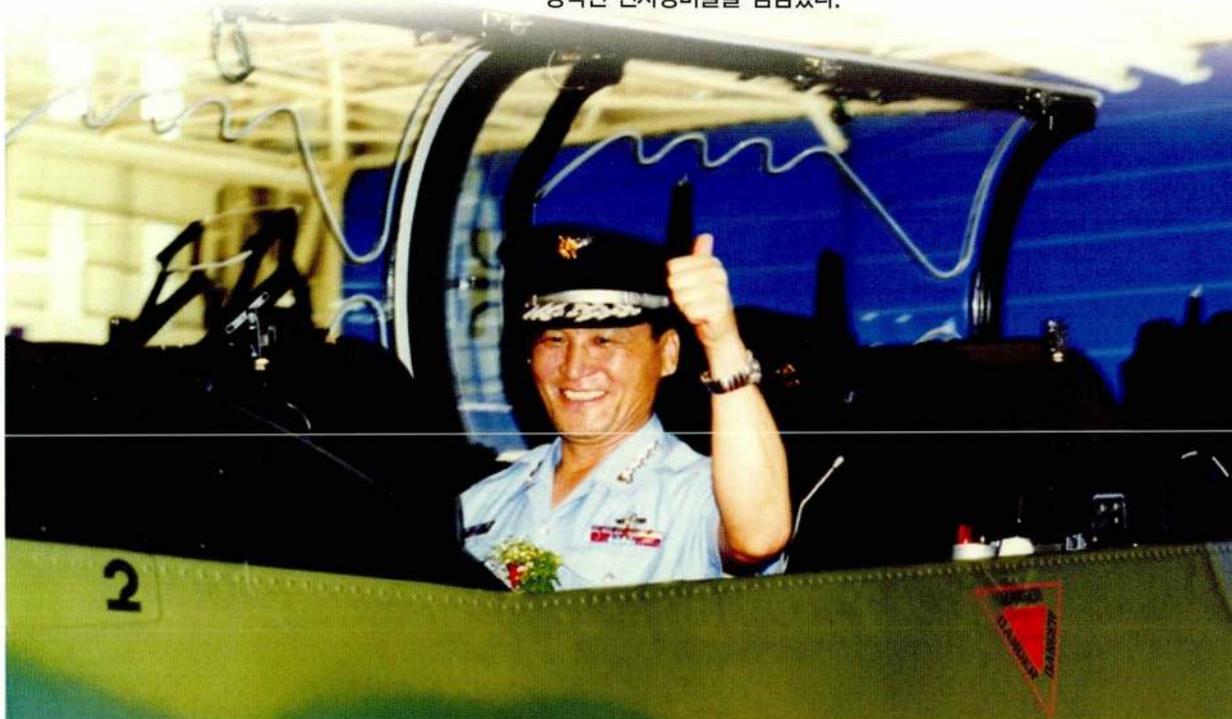


## 황우석 석좌교수와 환담

8월 9일, 황우석 석좌교수와 환담을 나누고 있는 참모총장

## 국산 전술통제기 KO-1 1호기 출고식 참석

참모총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O-1(Korea Observation-1)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하여 항공기를 직접 탑승하고 장착된 전자장비들을 점검했다.





**공군주임원사 이·취임식**

8월 4일, 공군본부 대연병장에서는 '공군주임원사 이·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비행안전 대토론회 주관**

참모총장은 8월 11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주요 비행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안전 대토론회'를 주관했다.





2005 대한민국 과학 축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공군 전시실에서 비행시뮬레이터에 탑승, 비행조종을 체험하고 있다.



2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8월 7일 화재진압 도중 3도 화상을 입은 소방대원을 CN-235 수송기로 긴급 후송했다.



3

제11전투비행단은 8월 2일 민항기 피랍 상황을 가정한 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4

쿠웨이트에 파병된 제58항공 수송단(다이만 부대)의 이해원 중령은 8월 9일 이라크전 전장 출격 100회를 기록했다.



5

공군 정보화 정책관리자 과정이 8월 18일 김광렬 한국생산성본부 교수의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6

제5회 비행시물레이션대회  
입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항공  
생리훈련' 체험 행사가 8월 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되었다.



7

제30방공관제단 예하 8546부대  
에서는 장병 개인용 우편함을  
제공, 상호간 편지를 자유로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열린  
마음 우체통' 운동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

군수사령부 항공기술연구소는 8월 19일 한  
기계연구원 신뢰성평가센터 및 내열재료연구팀  
기술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9

8월 2일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93기 공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에서 아버지 위겸량(55·사진 왼쪽) 예비역 준위에 이어 항공소방특기를 받은 위영욱(22) 하사



10

8월 19일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에서는 '미스터 다이만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11  
8월 3일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이등병 부모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 생명공학 기술과 미래의 삶

— 황우석 석좌교수 특별강연 —



황우석 석좌교수가 세계 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개 '스니피'를 안고 있다.

지난 8월 9일 공군본부에서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인 황우석 석좌교수님의 특별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황우석 석좌교수님의 강연 내용을 요약하여 지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은 돼지의 심장은 우리 사람의 몸에 들어가 면역거부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면역 거부를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뽑아 내고 인간의 면역 유전자를 반대로 가져다 넣어줄 수는 없느냐?

이런 과제를 걸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외양으로는 완전히 돼지이지만 면역체계는 사람하고 똑같은 돼지인 Humanized Pig, 즉 인간화 돼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돼지의 체중 문제와 세균 문제까지 해결된 '무균 미니돼지'가 지구상 최초로 태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 늘 저는 여러분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설명 드리면서, 우리 국가가 나아가자 하는 여러 가지 방향 중에 과학기술은 국가의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매체들이 잘못 알고 보도를 잘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줄기세포를 만들어 냈다니까 이 줄기세포로부터 사람의 간이나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를 마음대로 유도해서 꼭 바꿔줄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오보입니다.

### 인간화 돼지의 탄생

그럼 줄기세포는 도대체 뭐를 하자는 것이냐?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이 인간의 장기를 얻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나? 바로 사람하고 똑같은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돼지의 장기를 얻어 쓰는 거지요. 돼지 심장하고 사람 심장하고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와 같

### 줄기세포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장기이식을 향한 우리의 노력의 한 단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줄기세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 굽기의 척추 속에 들어있는 신경이 척수입니다. 타격에 의하여 척수가 다치게 되면 끔찍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사람의 몸은 한번 망가지더라도 다시 생리적 재생이라는 복원기능이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척추신경은 복원이 안 돼요.

하지만 만약 과학기술이 복원 역할을 하는 세포를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까 시험관에서 만들어서 인체에 넣어주면 원래 기능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세포치료 조직이식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바로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라는 것은 1998년 위스콘신 의과대학의 제임스 탐슨이라는 학자가 인간의 배아에서도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하나의 먼 꿈에서 가능성의 단계에 한 장을 열게 되었지요.

당연히 세계 최초로 이것을 해 본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있더라. 환자의 몸에서

떼어 낸 체세포를 넣어 가지고 복제배아를 만들어 보니까 2, 4, 8 세 단계 분열은 잘됩니다. 세계 어느 나라 팀도 여기까지는 잘 와요. 여기에서 16수를 못 가더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Eight Cell Block', '8세포기 장벽'이라고 불렀어요. 이 8세포기 장벽의 발생요인도 알 수 없었지요.

### 8세포기 장벽, 인간복제를 막기 위한 자물쇠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신성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느님이 인간복제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물쇠를 채워놨다 이겁니다. 다른 동물 복제 과정에서는 이런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사람과 원숭이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성설을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자라 일컬어지는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제럴드 샤튼이라는 박사가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꿈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인 Science지에다가 연구 결과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완벽한 인간배아 복제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 결과와 정반대 결과가 세계 최고의 저널에 발표되었다 이겁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 하늘이 주신 기회

그런데 하늘은 무심치가 않았어요. 갑자기 이 샤튼 박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우리의 동물복제 기술이 앞서 있으니 우리의 연구원 한 명

을 지원해달란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냈지요. 그랬더니 우리 연구원이 거기에 최고로 실험 경험이 많다는 칼 박사가 한 시간 반씩 걸렸던 동물복제 실험을 10분만에 깨끗하게 해냈단 말입니다. 노련함이지요.

샤튼 박사가 이걸 보더니 제게 “한 나절만 너희 실험실 좀 견학을 하자”며 청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의 실험실을 직접 오겠다고 한 겁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이런 사람하고 교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양반한테 우리 실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우리 결과를 다 보여드렸을 때, 이 분이 자기 연구 결과와 정반대의 것을 과연 수용할까? 저는 운명에 맡겼습니다.

### “내일의 해는 네 이름으로 뜰 것이다”

역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결과를 보고 난 그는 “샤튼의 시대는 오늘로 막을 내렸다. 내일 아침에 해는 바로 네 이름, 우석이라는 이름으로 뜰 것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후 저는 샤튼 박사의 소개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Science지에 우리의 연구 결과가 커버스토리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Science나 Nature지에 논문 한편 실리는 것이 그게 꿈입니다. 커버스토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 후 저는 영광스럽게도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



진 과학기술의 결과 중에서 최고 결과만을 모아 가지고 발표를 하는 '특별한 학회'에서 최고의 한편에게만 주어지는 Special Talk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 2월 12일 미국 시애틀에서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각국에서 오신 1,200명의 과학자들이 기립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기술을 개발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엉겁결에 우리 한민족은 한자문화권에서 유일하게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인데, 이것을 가지고 집어먹다 보니깐 손가락에 관절이 발달하고 피부가 유난하게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것 같다 그랬습니다.

### 성실과 인내가 천재적 두뇌를 앞선다

여러분 과학기술은요,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IQ 190짜리의 천재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성실과 인내라는 가치가 천재적 두뇌를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라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나갔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나라 젊은이들의 고귀한 성실성과 하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왼쪽 가슴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가 언제 우리 이웃에 있는 난치질병 환자에게 적용될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나라만 혼자 답을 쌓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큰 몫을 가지돼 각국의 과학자들에게도 선택과 함께 참여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중앙에 꽂히고 그 주위에 동심원을 그리면서 각국의 국기가

같이 휘날릴 때 이 기술은 전 인류를 향한 우리의 공동 재산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조심스럽게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생명이라는 기적과 신비에 감히 도전한 한 남자의 인생교백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의 생명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

### 황우석 석좌교수는...

1977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조교수, 부교수 및 농촌진흥청 검임 연구관을 거쳐 1997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1996년 대한수의학회 학술위원장을 시작으로 한국수정란이식학회 학술위원장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비롯, 현재 한국임상수의학회 부회장, 일본수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황 석좌교수는 1999년 국내 첫 송아지 체세포 복제에 성공하고 2004년에는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했다. 그 결과 미국 타임지의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에 선정되고, 세계적 권위지인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의 커버를 장식했다.

나아가 2005년에는 난치병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처음으로 성공하는 등 전세계인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강연 요약·정리 편 집 실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특별우표



마지막 비행을 마친 F-5B 전투기

## ‘자유의 투사’여 안녕!

- 한국 최초 초음속 전투기 F-5A/B 고별 비행, 역사 속으로 -

지난 8월 3일 제1전투비행단 주기장. 항공기 기수 부분(Nose)에 화려한 화환이 걸리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높이 치켜든 삼페인 병에서 술이 흘러 마치 비행기하고 건배라도 하자는 듯 기수를 적신다. 항공기 주위를 둘러싼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아주 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애인을 떠나보내는 듯 아쉬움의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이 날은 바로 1965년 도입되어 40년 동안 한국 공군의 전투기로 활약해 온 F-5A/B(애칭 ‘자유의 투사’/F-5A는 단좌, F-5B는 복좌) 항공기가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퇴역한 날.

이 날 고별 비행은 1비 102전투비행대대 대대장인 나병엽(43세) 중령과 학생 조종사 이대규(25세) 중위가 조종하는 F-5B 항공기가 조종사 작전가 능훈련(CRT; Combat Readiness Training) 임

무를 마치고 오전 10시 부대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마무리됐다.

고별비행 시 조종간을 잡은 나 중령은 “F-5A/B는 우리 공군의 40년 지기”라며, “이제 후배 전투기들에게 임무를 넘기고 퇴역하지만 공군은 이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바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고별비행을 남다른 감회로 맞이한 한 사



F-5A 편대비행

람이 있었으니... 바로 항공기 기장 권오상(53세) 준위다. 권 준위는 “20여 년 세월을 친자식처럼 돌보아 오면서 온갖 정이 다 들었는데 이제 은퇴한다니 섭섭하기 그지없다”며, “설계수명이 30년 이었는데 선후배 정비사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40년을 알뜰히 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 한국 공군의 초음속 전투기 시대를 연 F-5A/B

1955년 미국의 노스롭(Northrop)사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F-5A/B. 1963년 10월, F-5A 1호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며, 2년 뒤인 1965년 4월, F-5A/B 20대(F-5A 16대, F-5B 4대)가 한국 공군에 인도되었다.

당시 우리 공군의 주력기종은 아음속 전투기였던 F-86 세이버(Sabre).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쓰였던 노후 항공기였다. 이에 반해 북한은 초음속 전투기인 MiG-19와 MiG-21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 공군에 초음속 전투기 시대를 연 F-5A/B는 이후 공군의 공중 요격과 지상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여러 차례의 대간첩작전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워 ‘간첩잡는 전투기’라 불리기도 했다.

F-5A/B가 활약한 대간첩작전은, 1967년 4월 17일에 발생한 ‘서해 목덕도 대간첩작전’ (F-5A 16대 등 출격, 50톤급 간첩선 1척 격침), 1969년 10월 13일의 ‘소흑산도 대간첩작전’ (F-5A/B 38대 등 출격, 75톤급 간첩선 1척 격침), 70년대로

넘어와서 1970년 7월 27일에 일어난 ‘영덕 대간첩작전’ (F-5A 10대 등 출격, 60톤급 간첩선 1척 격침), 1978년 4월 2일의 ‘거문도 대간첩작전’ (F-5B 3대 등 출격, 간첩선 1척 격침) 등이 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의 기종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신기종(F-5E/F, F-4E, F-16 등)들이 등장하자 학생조종사들의 고등비행훈련과 작전가능훈련에 주로 운용됐다. 2004년 8월에는 102대대에 15개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안겨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F-5A/B는 그 동안 성능 개량과 기체 구조 보강 작업, 부식 방지 작업 등을 통해 최초 설계수명 시간이었던 30년을 10년이나 초과해 운용할 수 있었다. 노후 기종에 대한 한국 공군의 놀라운 정비 기술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F-5A/B의 공식 은퇴에 따라 조종사들의 작전가능훈련은 F-5E/F로 이뤄지게 된다. 퇴역한 F-5A/B 전투기들은 전시용과 정비 실습 교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국 공군과 함께 한 ‘자유의 투사’ F-5A/B. 비록 더 이상 하늘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 화려했던 활약들은 영원히 공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원고정리 편집 실



1965년 4월 30일 수원기지에서 거행된 F-5A 인수식



제102전투비행대대와 함께한 기념촬영



# 한여름 밤, 금빛 음악의 향연

- 공군군악대, 제주 국제관악제 참가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김 세 현



탁 트인 북태평양을 마주한 남해의 아름다운 섬 제주. 돌도 많고 바람도 많은 이곳 해변이, 올 여름엔 공군군악대의 금빛 선율로 가득 찼다.

**공**군군악대는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펼쳐진 제주 국제관악제에 참가, 탐동 해변공연장, 한라 아트홀,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등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했다.

### 제10회 제주 국제관악제 참가

제주 국제관악제는 1995년에 시작된 이래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96년 미실시). 홀수 해에는 밴드 축제, 짝수 해에는 앙상블 축제로 한다는 전통에 따라 올해는 대규모 밴드 축제로 마련돼, 참가 관악단 순회 연주를 중심으로 특별 이벤트와

보조축제가 연일 화려하게 펼쳐졌다.

공군군악대는 제1회 관악제부터 참가해 왔으며, 이번에도 개막 팡파르를 비롯한 주요 공연들을 성공적으로 수행,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실새없이 이어진 공연일정 속에서

12일 탐동 해변공연장에서의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공군군악대는 13일 한라 아트홀에서의 실내 공연, 15일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에서의 단독



공연, 16일 '모슬포 주민을 위한 특별 콘서트'에 이르기까지 바쁜 공연 일정을 이어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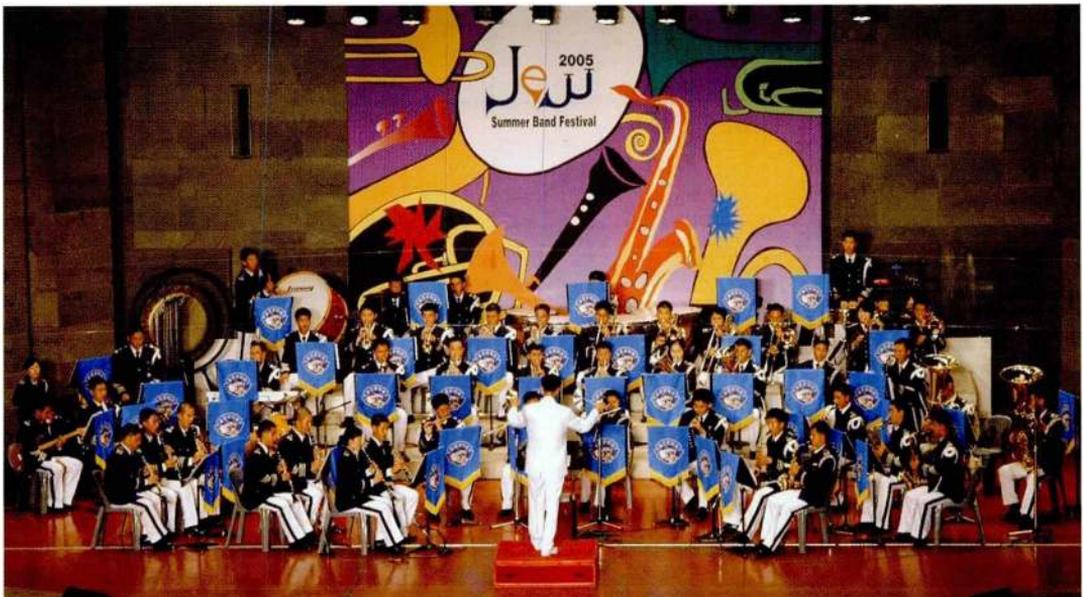
공연은 모두 뜨거운 낮을 피한 야간 공연이었다. 늦은 공연시간과, 열대야, 때로는 소나기까지 겹쳤지만 객석은 항상 만원이었다. 말쑥한 제복을 입은 공군군악대의 모습과 깔끔한 무대매너, 수준 높은 연주, 그리고 여기에 성공리에 마친 개막식 공연의 입소문까지 더해졌기 때문. 행사에 참가한 백성현 중위(29세, 트롬본)는 “무더운 날씨와 예고없이 쏟아진 소나기. 사실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우리는 관객으로 가득 찬 객석과 격려의 박수를 마주했습니다. 벅찬 감동 속에서 우리는 한

곡 한 곡 최선을 다해 연주했고, 관객들은 어김없이 뜨거운 박수와 '앙코르'를 연호해 주었습니다.”라며 행사의 감동을 전했다.

### ‘브라보, 공군군악대!’

연일 계속되는 11개국 51개 관악팀들의 연주회 중에서도 공군군악대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정통 관악곡은 물론, 대금과 향피리, 사물놀이와 결합여진 퓨전 협주, 중창팀과 군악대 밴드 하늘 소리의 공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레퍼토리를 완벽히 소화해 냈으므로, 평균 30~40분 정도인 타 참가팀들의 공연보다 훨씬 긴 80분 공연을 하면서도 객석의 열기를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이어갔다. 듣성듣성하던 객석도 공군군악대의 차례가 되면 어느새 발 디딜 틈 없이 뿅뿅해 졌다. 특히, 인기 소프라노 홍금단 씨와의 협연과 3군 최초 여성보컬인 천려진 하사의 열창은 관객들의 이례적인 기립 박수를 받으며 공연의 백미가 되기도 했다.

공군군악대의 열정적인 공연과 객석에서 쏟아지는 박수, 끊임없이 이어지는 앙코르... 늦어버린 시간도 열대야도 잊은 채, 해변의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 ‘서울에어쇼 2005’

-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



전투발전단 에어쇼기획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에어쇼 2005’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서울기지에서 개최된다. 1996년에 최초로 개최된 이후 격년주기로 열리고 있는 서울에어쇼(2000년에는 ASEM 회의 관계로 1년 연기되어 2001년에 개최되었음)는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다. 금년 서울에어쇼는 23개국 200여 개의 업체가 참가를 결정하여 성대한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 ‘서울에어쇼 2005’의 다양한 볼거리들

‘서울에어쇼 2005’의 주요 행사로는 국산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차세대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축하비행 및 시범비행,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장비전시, 시민행사 등이 계획되어 있다.

에어쇼에 앞서 ‘항공우주력의 역할과 항공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항공우주심포지엄이 10월 17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실시되어, 많은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항공산업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어쇼 2005’는 10월 18일 식전행사와 축하 및 시범비행·곡예비행 등의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장비전시 등이 23일까지 6일간 시행된다. 10월 21일까지의 비즈니스 데이 기간에는 방위산업체 관련자들의 전시 및 관람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방산물

자 수출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어 23일까지의 퍼블릭 데이 기간 중에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기간으로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한국항공소년단 발대식도 계획되어 있으며, 성남 시민의 날 행사가 이어져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에어쇼 2005’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주요 이벤트 행사로는 열기구 탑승 체험장, 곤돌라 체험, 디지털카메라 촬영대회, 종이 비행기 날리기 경연대회 등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 항공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어쇼. 이번 ‘서울에어쇼 2005’는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의 발전된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우리의 우수한 방산 능력 및 국방력을 만방에 과시하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에어쇼에 참석한 주요 외국 VIP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 MBC 김정호 기자의 KF-16 체험기

## ‘광복 60년 전투기에서 바라본 우리 산하’



**광**복 60년을 맞이하여 제20전투비행단에  
**○**서는 특별한 비행이 있었다. 바로 MBC  
김정호 기자가 KF-16 전투기를 타고 한반도 전  
역을 돌아본 것. 그날의 특별한 체험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 보자.

## 우여곡절의 연속

번개가 내리쬐히고, 중부 지역 전역에 호우경  
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밤. 그리고 MBC  
방송국 사회부 밤샘 야근. 전투기 탑승이 예정되  
었던 바로 그날은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가운  
데 시작됐다.

더 큰 골칫거리는 카메라 기자가 항공 생리교  
육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내가 촬영까  
지 맡게 됐다는 사실이었다. 피곤에 지친 육신,  
낮게 내리깔린 구름, 생전 처음 잡아보는 방송용  
카메라. 어쩐지 출발은 불안해 보였다.

애초 광복 60년 ‘전투기에서 바라본 우리 산  
하’가 기획되고 성사되는 과정은 더 극적이었다.  
갑작스런 기획, 공군의 협조 자체가 불투명한 상

황. 불과 하룻밤 사이에 ‘검토와 불가. 그리고 재  
추진’의 줄타기 끝에 이번 전투기 탑승에 대한  
최종 재가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의지할 것이라곤 ‘잘 되겠지’라고 속편한 대로  
주워담은 기대감 하나뿐이었다.

## 힘찬 비상

8월 11일로 잡혔던 촬영 D-Day는 결국 악천후  
로 다음날로 미뤄졌다. 8월 12일 오후. 편대 비행  
에 4대, 촬영용 1대 등 KF-16 5대가 동원됐다.  
10년 경력의 KF-16 베테랑 조종사의 몸값이 ‘87  
억’이라고 하니 곱하기 5를 하면 무려 400억원대  
조종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대 프로젝트였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테마공원의 놀이기구는  
다 섭렵해볼 만큼 스릴을 즐기는 걸 워낙 좋아해  
서인지 긴장보다는 설렘이 앞섰다. 멀미라고는  
단 한번도 해본 적 없는 과거사 등으로 미뤄 자  
신감이 충전돼 있었지만 만약을 대비해 검은 비  
닐을 준비하라는 권유는 받아들여기로 했다.

드디어 이륙 선상. 4대의 비상을 옆에서 지켜



20비 성규철 소령의 비행설명



비행을 위해 주기장으로



비행을 같이한 류정호 소령

본 다음, 잠시 뒤 전속력으로 활주로를 달린 촬영용 전투기가 2만 9천파운드의 터보엔진 출력을 디딤돌로 힘차게 날개를 폈다. 고도계의 숫자가 차츰 올라가고 있었다.

### 하늘길 국토 순례

새만금-목포-한라산-광양-한려수도-마산 창원-독립기념관으로 이어지는 비행이었다. 나름대로 의미를 담고 있는 항로였다. 호남과 영남을 두루 거치기로 한 건 동서화합을 상징하기 위

한 것이었고, 임진왜란의 전적지인 한려수도와 독립기념관은 광복 60년을 기념하는 데 적격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새만금. 환경이나 개발이냐는 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던져진 곳. 여의도의 94배에 달하는 새로운 국토가 만들어지는 단군 이래 가장 큰 간척사업으로 불리지만 생명의 보고인 갯벌과 바다를 파괴한다는 반대론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곳이다.

10여 년 전 기차 여행길에 잠시 들렀던 목포. 하늘에서 내려다본 목포는 상전벽해의 현장처럼 느껴졌다. 아파트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제주도. 바둑판처럼 네모반듯한 육지의 논밭과 달리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는 오히려 자연미가 담겨 있었다. 구름이 곁들여진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전투기 편대가 지나는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남해 해안선을 따라 계속된 비행. 오렌지 빛으로 기억되는 광양제철 단지과 마치 조약돌처럼 보이는 작은 섬들이 용기종기 모여 있는 다도해.



전투기 탑승 직전 '파이팅'



차츰 귀를 막기보다는 눈을 감고 그 우렁찬 엔진소리를 가슴으로 느껴봤다.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 같았다.

비행 내내 마음의 짐이 댔던 건 촬영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였다.

‘베스트 파일럿’ 20비 류정호 소령의 안락한 조종으로 촬영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처음 잡은 카메라였지만, 앵글에 담은(아니 피사체가 렌즈에 들어와 졌다는 게 정확할 것 같다) 한반도의 모습이 방송용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일이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산하, 촬영에 방해가 될 것 같았던 구름조차 오히려 좋은 배경화면이 돼주었다.

남해대교와 삼천포 화력발전소를 거쳐 400년 전 충무공이 이끈 우리 수군의 승전고로 가득 찼을 한려수도, 스치고 지나가는 현장들이었지만 하늘 길을 따라 계속된 국토 순례의 기분은 짜릿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낙동강. 영남지역의 젖줄, 마를 듯 마르지 않는 낙동강 물줄기는 마치 우리 민족의 생명력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만 1,400피트, 3km가 넘는 하늘 길은 생각보다 안락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산골마을에서 뛰놀고 있을 아이들, 초고층 마천루숲, 바다 위 외로운 섬까지 우리 공군의 엄호 아래 있다는 사실이 꽤나 든든했다.

### 짧은 경험 긴 여운

드라이 아이스처럼 전투기 사이로 파고드는 구름을 하늘에서 만져보는 기분도 전투기 탑승이 준 선물이었다.

‘교통체증’이라곤 전혀 없을 것 같은 하늘 길은 왜 그리 복잡한지. 지상과 숨가쁘게 오가는 교신음이 오고가는 가운데 헬기 2대, 대한항공기와 하늘에서 조우했을 때도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남해 추자도와 서해 어청도 인근을 지났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얼마 전 훈련 중 전투기와 함께 산화한 조종사들이 불현듯 떠올랐고 순간 숙연함이 샘솟았다.

1박 2일의 전투비행단 생활. 이륙 때 내뿜는 전투기 제트 엔진 소리가 점점 친숙하게 다가왔다.

식민의 어둠과 분단, 찢어지는 가난까지 민족과 함께 살아온 우리 땅. 영욕의 회전문을 돌아 이제 앞으로 60년, 아니 영원히 함께할 우리 국토에 대한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처녀 비행은 성공작이었다고 자평하고 싶다.

아쉬운 점은 카메라 앵글로 산하를 담는 데 집중하다보니 웬지 네모 속에 갇힌 기억만 남았다는 점이다. 언젠가 한번 더 카메라 앵글이 아닌 순전히 두 눈으로만 우리 땅을 둘러볼 기회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2시간이 채 못되는 짧은 비행. 어릴 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를 함께 거닐던 기억이 일생의 지주로 남는 것처럼, 광복 60년의 나이테를 새기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용트림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 한반도를 하늘에서 돌아본 기억은 먼 훗날 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

김정호 기사는 MBC 통일외교부 소속 기자로서 현재 국방부를 출입하며 국방현안 및 통일안보 전반에 대한 활발한 취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방송출입기자로는 처음으로 공군 전투기를 타고 안보현장을 취재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기자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 첨단 과학 공군의 파워는 도서관에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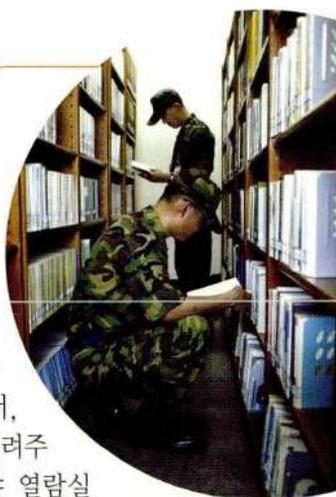
### - 공군도서관 탐방 -

**하**늘과 우주를 무대로 하는 첨단 과학 공군. 그런 만큼 공군 장병들은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전부가 전문가이다. 그러나 전문가다운 지식은 같고 닳지 않는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녹슬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군 장병들이 전문 지식을 쌓고 나아가 미래의 꿈을 밝히는 곳은 어디일까? 이번 호에서는 공군 장병들의 보물창고인 각 부대 도서관을 찾아가 보았다.

#### 공군중앙도서관인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공군에는 1년 중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는 도서관이 있다. 365일 내내 아침 일찍 문을 열어서, 밤 늦게까지 책을 빌려주고, 자정이 넘어서야 열람실



불을 끄고 하루를 마감하는 도서관. 바로 공군 사관학교 도서관이다.

공군중앙도서관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공사도서관은 17만권이 넘는 장서와 매년 1,000종 이상의 정기간행물, 전자저널을 보유하고 사관생도 및 장병의 지식함양을 위한 보고(寶庫)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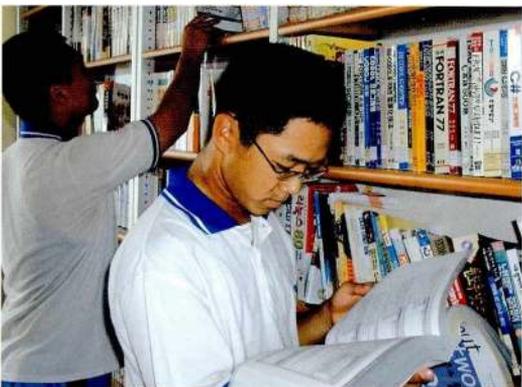
3층 규모의 1,000평이 넘는 이 도서관에서 단지 책만 읽는다고 생각하면 오산. 시청각실에서는 VTR, DVD를 통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어학학습기 앞에 앉아 헤드폰을 쓰고 외국어공부를 할 수도 있으며, 매일, 매주, 매월 새로 나오는 잡지와 간행물을 보며 즐길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도 한다. 이렇듯 공사도서관은 장병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제는 최첨단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공군의 비전에 발 맞추어 공사도서관도 전자저널과 E-BOOK(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정보 제공과 소장 자료의 원문 DB를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첨단 전문화 공군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디지털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있다.

더하여 현재 2만권이 넘는 '항공·군사전문자료'를 지속 확보하고 전 장병에게 제공하여,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항공·군사전문도서관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다.

### 장병들에게 다가선 제20전투비행단 도서관

약 80평의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 제20전투비



행단 도서관은 중앙에 위치한 서고를 중심으로 좌측에 열람실, 우측에는 대학원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고, 중앙 로비에는 로비의자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다.

서고에는 총 4,000여 권의 서적들이 구비되어 장병들에게 마음의 양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각종 신작 영화들도 가득하다. 모든 서적 및 영상물들은 바코드를 부착하여 전산관리되고 있다.

서고 좌측에 있는 열람실은 학습공간으로, 특히 외국어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어학기 8대가 있어 장병들뿐 아니라 관사 주민,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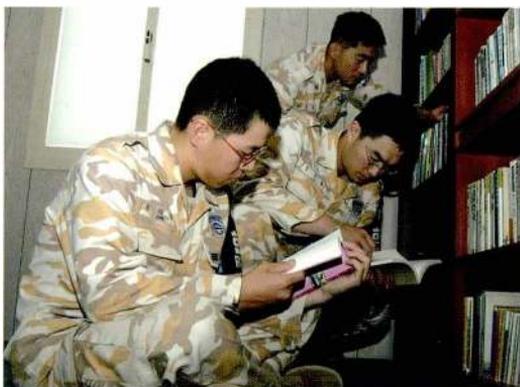
도서관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00부터 밤 22:00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고 있다.

### 사막의 열기를 독서로 식힌다!

#### 제58항공수송단 도서관

이라크 전장 공수작전의 중심지인 쿠웨이트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 지역만리 해외파병 부대인 이곳에도 도서관은 있다. 비록 정통스타일의 도서관은 아니지만, 부대원들이 책도 읽고 휴식도 취할 수 있으니 신 개념의 다용도 '독서 휴게실'인 셈이다.

다이만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800여 권, 대부분 파병 전 공군부대에서 기증한 책이지만, 다이만 부대를 방문하신 분들이 기증한 서적들도 있다. 장병들에게 지난해 11월 참모총장님께서 주고 가신 신간서적이 제일 인기가 높다.



다이만 부대가 해외파병 부대이기 때문에 시설을 최소화하다보니 도서관의 규모는 여타 부대보다 좁다. 하지만 장병들의 독서열만큼은 어느 도서관 못지않다. 책을 읽는 다이만 장병들은 이역만리에서 고국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얻기도 한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의 열기도 아랑곳 않고 독서 삼매경에 빠진다. 이렇게 자기계발에 충실한 다이만 장병을 볼 때면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역만리 다이만 도서관, 그곳은 다이만 장병들의 작은 쉼터이자 전장 출격을 위한 재충전과 미래를 향한 꿈의 보금자리다.

### “책은 산 속에서 봐야 제 맛이요”

#### 제30방공관제단 도서관

전국 각지에 예하부대가 산재해있는 30단은 예하부대의 수만큼이나 부대원들의 독서환경이 다양하다. 빌려서 보는 곳, 사서 보는 곳, 사주니까 보는 곳 등 약간 과장하면 독서환경만 가지고도 저마다 처한 부대환경이 짐작이 갈 정도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었으니 이는 엄청난 독서열이다. 어딜 가나 책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마련, 하지만 30단에 배속을 받아서 군 생활하는 이들 대부분 자신의 관물함에 10여 권의 책들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다. 부대가 대부분 벽고지에 있다보니 딱히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한 것들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평생

**‘책 속에 길이 있다’ 고 했다.**

**오늘도 길을 찾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독서에 매진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공군은 ‘첨단 과학군’ 일 수 있다.**

한번도 경험하기 힘든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자신의 지적욕구를 채워가는 낭만을 발견했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장병들의 독서열에 비해 사이트의 현실은 열악하다. 대부분의 서가에 7~800여 권의 책이 전부이고 적은 곳은 400여 권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어떤 곳은 영외자들이 매달 독서지원비를 1,000원씩 모아 부대 도서를 구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대 영외자의 수가 적은 곳은 이마저도 힘든 현실이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은 도서대여. 한 달에 1~2번 정도 부대 ‘북박스’로 불리는 두부상자에 책을 빌려온다.

이마저도 힘든 부대들이 있으니 육지에서 배 타고 가는 시간만 5시간 걸린다는 섬마을 부대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수되는 진중문고를 비롯한 400여 권의 책이 전부이다. 아쉬운 대로 휴가를 통해 열심히 자신들이 보고 싶은 책들을 육지에서 공수해 온다.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부대만큼이나 다양한 독서문화가 존재하는 공군. 그러나 공군 장병들의 자기발전과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독서열은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대단하다’. ‘책 속에 길이 있다’ 고 했다. 오늘도 길을 찾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독서에 매진하는 장병들이 있기에 공군은 ‘첨단 과학군’ 일 수 있다. Ⓢ

원고정리 편 집 실

자료제공 : 공군사관학교

제5전술공수비행단

제20전투비행단

제58항공수송단

제30방공관제단



창설 10돌!



하늘을 누비는 여섯 독수리, 블랙이글

객원기자 백 예 니

**“날씨가 흐려서 오늘 비행은 취소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얼굴 ‘블랙이글’을 만나러 가는 날. 차창 밖으로 바라본 하늘은 연이은 장마 탓인지 시커먼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지난 번 공군참모총장배 모험항공기 본선대회 때 보았던 블랙이글의 멋진 비행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약간은 아쉬운 마음으로 블랙이글이 있는 제8 전투비행단 239특수비행대를 찾았다.

처음 방문하는 비행대. 신기한 마음에 이것저것 설명을 듣다보니 날씨가 개어 예정대로 비행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블랙이글의 예쁘게 도장을 한 기체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하늘은 아니었지만 주기장에 대장님과 나란히 서서 감상하는 기동은 ‘짜릿’했다. 게다가 행사 길이에 따라 편집되는 ‘편집판’ 기동이 아닌 ‘완전판’ 기동을 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하늘에 아로새겨진 기체에 품기도 벽찬 커다란 하트를 바라보며 감동에 젖은 하루였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블랙이글을 만나보자!

**창설 10돌,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의 얼굴!**

블랙이글에게 2005년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바로 1995년 9월 25일 발대식을 가지고 동년 12월 1일부터 정식 창설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기 때문이다. 블랙이글의 10돌이란 다른 부대의



서 블랙이글

의 구호도 Team Work!

독수리 5형제가 '완전합체' 를 해야 악당을 무찌르듯이 블랙이글 6대도 '완벽호흡' 이어야 최고의 비행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이다.

보기에는 마냥 멋지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이 몇 번이나 뒤집히고, 위아래로 가파르게 솟구치는 기동 내내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이겨내야 하는 고난이도의 비행을 하는 블랙이글의 조종사들, 각 부대에서 추천 받은 정예멤버로만 구성된 이들은 우수한 비행성적은 물론이고 700~8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베테랑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이들의 임무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동을 펼쳐야 하는 '특수비행' 이기 때문. 위험하고도 힘든 임무를 무사히 수행해 온 지난 세월들 속에서 그들의 10돌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사실 블랙이글이 처음 창설된 것은 1967년. 1962년 F-86 Sabre 기종의 'Blue Sabre' 시대를 거쳐 F-5A기의 1세대 Black Eagles에서 1994년 A-37B기의 2세대 Black Eagles로 재편이 되어 1995년 정식 발대식을 가지고 재탄생되기까지 수많은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이 블랙이글의 장구한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고 있었다.

## 대한민국 최고의 파일럿!

### 블랙이글 조종사

아직은 곡예비행이 신기하지만 한 기자에게 블랙이글 편대에서 5번기 Lead solo를 맡고 계신 김태일 소령님이 아주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 주셨다.

총 6기 편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은 4대의 Formation과 2대의 Solo로 나뉜다. 다른 비행과는 달리 특수 곡예 비행이기에 블랙이글 조종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래

## 항공기 있는 곳에 정비사도 있다!

### 블랙이글 정비사

블랙이글 조종사들이 안전한 비행을 하기 위해서 빠져서는 안될 단짝, 바로 블랙이글 항공기 정비사들이다. 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정비사들도 각 포지션별로 항공기를 담당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비행기와 조종사와 정비사가 완전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당연히 내 식구는 내가 알아서 잘 챙기게 된다.

블랙이글이 고공으로 출격하기 2시간여 전부터 정비사들은 행여 이상이 없을까 항공기를 확인 또 확인한다. 조금의 이상이라도 있을 경우 대형 사고로 직결되기에 정비사들의 점검은 어느 작업보다도 신중하고 철저하다.



브리핑실에서 설명 중인 김태일 소령



블랙이글 항공기에 대해 설명 중인 정비반장 오현근 준위

공군 특수비행팀  
Blackeagles  
Team-work  
대한민국  
공군의 얼굴  
블랙이글  
브리핑실 벽의  
블랙이글 구호



블랙이글이 하늘에 수놓은 하트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비행을 하면서 단 한번도 비행기 결함으로 에어쇼에 참석하지 못한 이력이 없을 정도로 정비사들의 점검은 완벽 그 자체다. 하늘에 멋진 그림을 그린 항공기가 무사히 착륙할 때면 힘든 것도 잊어버린 채 보람과 성취감으로 가슴이 벅차 오른다는 블랙이글의 정비사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6대의 독수리는 마음놓고 하늘을 누비고 있다.

### 블랙이글 곁에는 항상 우리가 있어요!

#### 동호회원들

다른 비행대대 조종사들과 달리 블랙이글에만 있는 것은? 바로 팬클럽이다. 잉?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팬클럽이냐고 물으신다면, 블랙이글 조종사들은 연예인은 아니지만 공인(국가·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다는 말을 되돌려 주고 싶다.

블랙이글의 성장 과정에는 팬들의 후원도 단단히 한몫 했다. 이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면서 블랙이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재 600여 명 이상의 회원들이 블랙이글의 행사시마다 자원봉사를 자청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블랙이글에서는 1년에 두 차례 동호회원들과 직접 만나는 팬 서비스를 한다. 이외에도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행사를 통



동호회원 초청행사

창설 10돌을 맞은 블랙이글.  
비상의 힘찬 날갯짓을 하는  
블랙이글의 여섯 독수리.  
세계 속에 우뚝 선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해 우리 국민들, 블랙이글과 함께할 기회가 더 많아질 듯 하다.

####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창설 10돌을 맞은 블랙이글. 이제 새로운 10년을 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바로 블랙이글 대장님이신 신옥철 중령(진급예정자)님의 말씀처럼 “우리



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든 비행기로 세계 각국의 하늘을 누비며 에어쇼를 선보이는 것”. 아직까지는 많은 제약 탓에 오래된 외국 항공기로 비행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머지않아 블랙이글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이 올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이제 다시 한 번 비상의 힘찬 날갯짓을 하는 블랙이글의 여섯 독수리. 세계 속에 우뚝 선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취재를 끝내고 주기장을 빠져나오는 기자를 향해 비행을 마친 블랙이글 조종사들이 잘 가라며 손을 흔들어주신다. 블랙이글의 환상적인 비행과 멋진 조종사들에게 완전히 매료된 기자. 다음 번에는 팬클럽의 일원으로 비행대를 방문하고 싶다.

블랙이글 팻~팅~!! 🇰🇷

# 창설 반세기 · 전군 14년 맞이한 방공포병

방공포병사령부 소위 양준식

지난 1991년 7월, 우리 군 전력 운용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육군 방공포병이 공군으로 전군되어, 공군의 새 가족이 되었던 것. 1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 조국 영공 수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공포병. 창설 반세기, 전군 14년을 맞이한 방공포병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 방공포병의 태동

6·25전쟁 초기, 계속된 적의 공중공격으로 남한 전역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우리 군을 지킨 대공방어부대는 고사포대대 1개 소대였다. UN군의 참전 이후 미 고사포 부대가 계속 증원되어 대

공방어를 강화하게 되고, 이 고사포 부대는 종전 이후 창설된 대공포 부대의 모체가 되었다.

6·25전쟁이 끝난 후에는 5개의 고사포병 대대가 창설되어 전방지역의 대공방어를 강화하였지만, 북한군 공군력의 증강으로 후방 주요지역 및 시설에 대한 대공방어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육군에서는 1955년 창설위원회를 구성, 제1고사포병여단을 창설하여 수도권 및 후방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독립 부대로 존재하던 여러 고사포 부대가 편입되면서 제1고사포병여단은 규모나 전력 면에서 명실상부한 방공포병여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 6·25의 아픔을 딛고 성장한 방공포병

1958년부터 서유럽 방어를 위해 호크·나이키 유도탄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군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초 자주국방을 위한 장비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신무기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그 결과 1964년과 '65년에 걸쳐 2개의 호크 유도탄 부대와 1개의 나이키 유도탄 부대가 창설되는 등의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최초의 한국군 유도탄 부대 창설이라는 의의와 함께 독자적인 방공을 위한 발판이 된다.

이후 1972년에는 부대가 승격 개편되어 12월 1일 방공포병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이때 예하 부대도 함께 개편되면서 부대 규모를 확장, 성장을 거듭하였고 호크, 나이키와 같은 유도탄 배치와 더불어 대공포 부대, 발칸, 오리콘과 같은 신형장비가 도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증편이 진행되었다.



호크발사대

##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군

1980년대를 거치면서 대공방어 작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도탄 부대에 대한 전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시기는 방공포병 병과의 발전과정에서 전환기 또는 과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991년 7월 1일 방공포병사령부 및 방공포병 전력의 대부분이 공군으로 전군되어 방공포병이 새롭게 태어나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 방공포병의 현재와 미래

방공포병은 올해로 전군 이후 만 14년째를 맞이하였다. 1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만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음은 당연하다.

전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과도기였던 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다. 초기 몇 년 간은 방공포병의 공군화 작업이 진행되어 많은 노력 끝에 공군 문화로의 의식전환이 이루어



호크 경비병

져 공군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후 미스트랄, 재블린 등의 휴대용 대공포를 전력화하여 공군 방공포병 병과의 범위를 확장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기존의 무기체계는 장기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새로운 반세기를 향하여

이제 창설 반세기를 맞이한 지금, 우리 방공포병도 혁신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공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차기 유도무기(SAM-X) 전력화 사업을 추진해 이제는 실행만이 남아 있다. 물론 아직은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적의 공군력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한 대공방어의 필요성이 큰 것이 사실이며,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은 바로 우리, 군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방공포병은 조종, 항공통제와 더불어 공군의 전력을 결정짓는 핵심 분야이다. 이 세 분야의 전력과 타 지원 분야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영공은 완벽히 지켜질 수 있다. 방공포병이 새로운 무기체계와 함께 제도약할 그날까지, 전국 산간오지에서 지금도 땀 흘리며 근무하고 있는 방공포병 장병들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 Ⓣ



미스트랄

# 방공포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 방공포병사령관 인터뷰 -

## 창설 반세기를 맞이한 소감과 전군 이후 방공포병의 변화상

방공포병이 지난 '55년 육군에서 고사포 여단으로 창설된 이래 올해로 창설 50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믿음직한 조국영공수호 핵심전력으로 방공포병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과거 어려운 시절 방공포병의 초석을 놓아주신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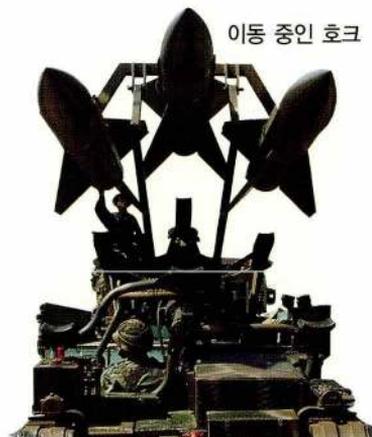
우리 공군 방공포병 병과는 지난 '91년 7월 공군으로 전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군 당시에는 새로운 공군 문화적 특성

의 융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군을 통해 항공기와 방공포병의 통합전력을 극대화하여 침투하는 적기를 효율적으로 초전 격멸할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휘통제 체제를 단일화하여 전력 운용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고 있음은 물론, 특기 전문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등 방공포병이 한 단계 도약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 방공포병의 임무와 역할

방공포병의 임무는 방공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초전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우리군의 주요 군사시설 및 전투력을 보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쟁 승리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방공포병사령부 예하에는 여단, 대대, 포대 등이 전국 도시 및 산악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호크와 나이키 무기체계로 이루어진 유도탄 포대는 대한민국 영공을 24시간 교대로 감시하며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인 호크

## 방공포병의 미래 청사진

방공포병사령부는 단순한 지대공 유도무기를 운용하는 방공포병사령부가 아닌 다양한 미래 불특정 공중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공과 유도탄 사령부로의 부대구조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무기체계 교체와 신형 무기체계 개발 등 전환기에 서서 단순한 방공포병 병과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 한반도 공중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 공군 차기 유도무기(SAM-X) 사업의 의미와 기대효과

한 국가가 그 국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군의 지원하에 60년대에 배치된 호크, 나이키 등의 유도무기는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의 우수한 장비였습니다.

방공포병 창설 반세기를 맞은 지금, 우리 군은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도무기는 아직도 60~70년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SAM-X 사업은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방공포병의 나이키 노후 무기체계가 교체되어 변화·증가되는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SAM-X 사업은 위협세력의 대량 살상 무기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차기 유도무기를 운용함으로써 앞으로 호크 대체 무기인 M-SAM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지대공 유도무기의 자주국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설 반세기, 전군 14년을 맞은 올해, 방공포병은 확고한 영공방위 임무 완수는 물론 한 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패트리엇트 발사

이스라엘

##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Python 5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소령 최영석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9월, 새로운 계절로 접어드는 이번 호부터는 세계의 새로운 무기체계 중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이스라엘의 Rafael(라파엘)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용 중인 적외선(IR : Infrared Ray) 추적 방식의 차세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ython(파이톤) 5이다.

##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Python 5에 관한 개발 연구는 1997~98년경에 시작되었다. 그 후 첫 번째 Python 5 시험은 2002년 중반에 시작되어, 2003년 중반까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최종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Python 5는 기존의 Python 4와 같은 기체 구조를 사용하여 두 가지 미사일 사이에 외견상으로 명백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Python 5는 개선된 신호 처리 능력과 함께 연장된 사거리와 전투 성능으로 Lock-On After Launch(LOAL : 발사 후 표적 지속 추적) 능력을 제공하는 개선된 장착 관성 측정 장치(IMU :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가진 새로운 적외선 영상(IIR : Imaging Infra-Red) 탐색기를 채용하였다.

Python 5의 존재는 상당 기간 동안 추측만 난무했으나, 이 새로운 미사일이 소개된 후 전파된 속도는 10년 이상 동안 Python 4를 둘러쌌던 보안성에 비하면 완전히 대조적이다.

## Python 4와 5

Python 5는 Python 4와 같은 공기역학적인 설계와 미사일 본체를 사용한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다. 두 가지 미사일의 무게와 무게중심은 같다. 신관 영역 뒤쪽으로 모든 Python 5의 구성 요소들은 Python 4와 같지만, 그 앞쪽의 영역에서 Python 5는 재설계되었다.

FPA(Focal Plane Array : 초점 평면 배열) 탐색기들은 Rafael과 Elbit의 공동 사업 회사의 반도체 장비로 이스라엘에서 생산되고, 탐색기 조준기 범위는 100도로써, Rafael은 작전 가능한 다른 어떤 탐색기보다 FPA 자체의 탐색범위가 넓다고 밝혔다.

탐색기의 새로운 신호 처리기는 25m/sec마다 양쪽 적외선 밴드로부터 영상을 동시에 비교 및 대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중 밴드 탐색기는 약조건 하에서도 미세한 목표물인 무인항공기 같은 작은 신호를 발생하는 표적들을 탐색 및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중 밴드 FPA 또한 개선되었던 IRCCM(Infrared Counter Countermeasure : 전자적 방해방식)보다 적은 오경보 비율을 달성하였다. 영상 탐색기는 약 500m에서 전투기 크기 표적의 명백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민감하고, 한 개의 픽셀 정확도만으로도 배경에서 표적을 식별할 수 있다.

Python 5는 IAI(이스라엘 항공산업사)에서 생산되는 광학 자이로(FOG : Fiber Optic Gyro)



를 가진 새로운 관성 항법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이 FOG IMU는 중간궤도 유도를 제공하여 미사일에 새로운 Lock-On After Launch capability(LOAL : 발사 후 표적 지속 추적 능력)를 제공하여, 비행자세 전환 없이 발사가 가능하다. 미사일의 INS(Inertial Navigation System : 관성항법장치)에 표적 자료를 보냄으로 Python 5는 자율적인 표적 탐색을 시작하는 시점인 탐색기의 탐색 한계치 이상의 거리에서 발사될 수 있다.

항공기 레이더, 헬멧 탑재 조준기 또는 기타 표적 자료에서 수신되는 신호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Python 5는 이와 같이 발사 항공기 주위의 360도 범위의 교전을 수행할 수 있다. IMU는 또한 F-16의 날개 끝 발사 장치들에서 발생하는 날개-비틀림 효과를 조절하고, 발사 시 미사일에 최적의 받음각을 충분히 제공한다.

Python 5의 사거리는 사거리를 연장하는 새로운 저압 서버 설계를 적용하여, Python 4는 약 40초 동안 공중에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Python 5는 90초 이상으로 연장되었다. Python 5는 초기 발사 단계에서 상승하고, 최종 단계 동안 강하하여 추진력을 얻는 탄도 궤적으로 최대 사거리를 얻을 수 있으므로 20km 이상의 공식적인 직선 사거리를 갖고, 최종 단계에서 더 좋은 종반 성능을 갖고 있다.

## 유사장비와 비교

그렇다면 Python 5를 각국의 유사장비와 비교해보자. 비교대상은 미국 방위업체 레이시온의 AIM-9X(‘슈퍼 사이드 와인더’, 열추적 방식이며, 고기동성, F-15K에 장착될 예정임), 영국 BAe사의 ASRAAM(Advanced Short Range Air to Air Missile, 영국 공군을 위해 독자 개발)이다.

Python 5와 AIM-9X, 그리고 ASRAAM, 세 가지 모두 전방향 공격이 가능하고, IRCCM 능력은 우수하며, 헛멜 연동 기능도 가능하다. 유도방식도 적외선 영상(IIR)으로 동일하다.

다만, 최대 사거리에 있어서 Python 5와 ASRAAM이 20km인데 비하여 AIM-9X는 22km이다. 더하여 ASRAAM은 탐지각  $\pm 90$ 도인데 비하여 Python 5는  $\pm 100$ 도, AIM-9X는  $\pm 135$ 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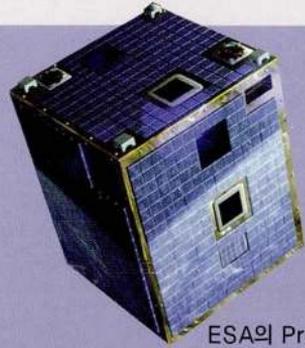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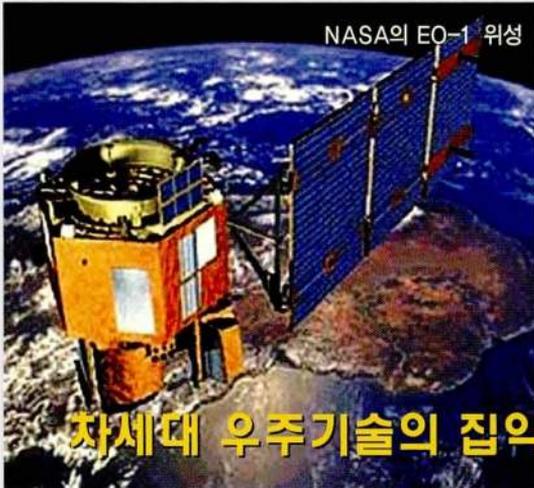
## 제 원

Python 5는 길이 3.096m, 본체 직경 160mm, 날개 폭 640mm, 발사 중량은 103.6kg이다. 탄두는 11kg의 HE(헬륨) 폭발을 사용하며, 신관은 능동 레이저로 되어 있고 영상 및 적외선으로 유도된다. 추진은 고체 추진체에 의하며, 사거리는 20km, 속도는 마하 4이다.

## 향후 전망

Python 5는 Python 4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및 보강하는 역할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Python 5는 Python 4와 완전하게 인터페이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Python 4의 모든 현재와 미래의 수출 고객들에게 구매 제안을 하고 있다. Ⓣ





## 차세대 우주기술의 집약체

# 소형위성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대위 진 승 오

2040년 대한민국, 1달 이내에 수도중심부를 겨냥한 테러가능성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정보기관은 의심이 가는 테러집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인공위성을 통한 영상수집. 그러나 운영 중인 위성들이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켜 송수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때 정부는 이러한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개발해놓은 소형 위성체 5기에 탑재체(카메라)를 조립하여 우주센터에서 발사시킨다. 곧이어 5기의 위성은 테러집단 본거지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고 정보수집을 시작한다. 위성조립에서 영상촬영까지 걸린 시간은 10일,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이다. 소형위성 분야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위성

현재 우리나라는 아리랑 위성으로 불리는 다목적 위성을 비롯해 통신위성인 무궁화 위성 등 몇 개의 위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위성들은 중량이 700kg이 넘는 중대형 위성들이다. 한번에 1기의 위성이 발사되는 현재의 개념에서는 위성에 탑재체를 많이 실을수록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성을 운영

하는 세계 각국은 이처럼 대형화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위성관련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감에 따라 같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좀더 '작고, 싸게, 빨리' 만들 수 있는 소형위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로 고도 1천km 이하의 저궤도를 비행하는 소형위성은 통상 무게가 500kg 이하의 위성을 말한다. 소형위성은 무게에 따라 미니위성

(100~500kg), 마이크로위성(10~100kg), 나노위성(10kg 이하), 피코위성(1kg 이하)으로 구분된다.

소형위성은 규모는 작지만 임무 수행을 위해 전력, 통신, 자세제어 등 대형위성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에는 별로 차이가 없으나 센서 등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하고 중량과 부피를 줄이기 위해 각 부품의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는 그야말로 우주 과학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 우주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소형위성

소형위성이 갖는 장점은 단기간에 제작이 가능하고 여러 기를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수의 위성이 무리를 이루거나 편대비행을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궤도상에 간격을 두고 진행하면 관측하는 시간 간격을 줄일 수가 있고 밀집대행을 이루면 특정한 지역을 상세하게 촬영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한두 개의 위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나머지 위성이 임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미국의 NASA는 2000년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EO-1'이라는 400kg대의 소형위성을 발사하였다. 소형위성 중에서도 다소 무겁게 느껴지지만 같은 임무를 수행하던 Landsat 시리즈의 위성이 약 2톤이 넘는 것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소형화라고 할 수 있겠다.

유럽의 ESA(European Space Agency)는 2001년 'Proba'라는 150kg의 소형위성을 발사했다. 우주환경감시 센서를 장착한 이 위성은 소형화 기술을 활용하여 위성의 크기와 중량을 대폭 감소시켰다.

이 밖에도 영국의 주도로 소형위성 군을 형성하여 DMC(Disaster Monitoring Constellation)라는 재난감시를 하는 시스템도 추진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소형위성 개발

우리나라는 학계를 중심으로 소형위성 개발이

시작되었다. 지난 1992년 최초의 우리나라 국적 위성이자 소형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우리별 2호, 3호를 거쳐 후속 모델인 과학기술위성 1호가 운영 중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위성 2호와 1kg급 피코위성도 개발 중이다.

우리의 소형위성 기술은 이미 독자개발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동급의 다른 나라 모델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는 주로 과학실험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점차 중·대형위성들이 수행하는 임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는 미래의 청사진이다. 지금의 작은 가능성이 미래에는 세계를 놀라게 할 커다란 변화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각국의 우주 과학기술이 자국의 국력을 좌우할 미래, 우리나라가 소형위성 개발은 물론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우리별 3호가 촬영한 서울지역 영상



NASA의 SACA 소형위성

# 항공소년단 창설과 항공인들의 과제



한국항공소년단 사무  
(예)공군준장 이문준

우리 항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항공소년단(Young Falcons of Korea)이 지난 8월 2일 과학기술부 산하 단체로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항공우주 선진국이 세계 안보는 물론 경제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번 항공소년단의 창설은 항공우주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국가발전은 물론 우리 공군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이한호 공군참모총장의 굳은 신념과 집념이 이루어낸 큰 업적이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항공소년단 창설

금년 4월 공군정훈공보실장 안정훈 장군의 청을 받았다. 그 내용인즉, 평소 공군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청소년 단체에서 오래 일한 경험을 살려서 항공소년단을 창설하고 실무책임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워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제 설 때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안정된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사무총장직을 스스로 물러났는데, 또다시 새로운 항공소년단을 창단한다는 것은 청소년 단체를 잘 아는 나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나보다 더 유능하고 열정을 가진 많은 공군후배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수용하기 힘이 들었다. 또한 사관학교 동기생인 참모총장계

누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결심을 더욱 어렵게 했다.

결심을 못하고 며칠을 보내던 나에게 용기를 심어준 것은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된 모형항공기 본선대회였다. 예선을 통과하고 전국 각지에서 대회에 참가한 만여명이 넘는 청소년들의 항공에 대한 열정을 지켜보면서 이들의 항공우주에 대한 꿈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우리 항공인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이 새싹들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현듯 들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공군참모총장의 발의에 뜻을 같이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정해주 님, 한서대학교 총장 함기선 님, 대한민국 항공회 총재 김경오 님을 공동발기인으로 하고 항공에 애정을 가진 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들로 임원진을 구성하여 '한국항공소년단 창립총회 및 발기인 대회'를 공군회관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초대 총재에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맡고 계신 정해주 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이제 우리는 막 첫걸음을 내딛을 뿐이다. 출발은 늦었지만 힘차게 비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단체와 차별화 하여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활기찬 단체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옛날과 달리 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항공인들이 힘을 합쳐 항공소년단을 지원하고 성원함으로써 모범적인 단체를 만들 때

정부나 기업, 나아가 개인의 지원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하늘과 우주를 사랑하는 항공인과 항공관련단체에 드리는 부탁 말씀

항공소년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군과 항공관련 대학 그리고 항공관련 산업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항공관련 시설 등을 항공소년단원들에게 과감히 개방하고 교육과 훈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항공소년단을 창설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항공분야에서 근무했고, 현재 근무 중인 항공전문가들은 자원봉사단에 가입하여 항공소년단원들에게 그들이 가진 항공지식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 각급 학교도 서서히 주 5일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정작 청소년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졌다. 청소년 단체도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지역 연맹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은 물론 우리의 현 청소년 단체의 추세이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항공인들이 해야 한다.

공군전우회, 사후장교회, 사관학교 동창회, 로카피스, 공사모 등 다 좋다. 뜻있는 항공인들이 지역별로 연맹을 만들고, 현역시절 항공분야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산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항공우주사상을 체계적으로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젊은 꿈나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공지식과 국가관 등을 바르게 심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A Dream, A Wish & A Challenge"

### 항공소년단의 주요 추진계획

항공소년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온라인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단복을 만들어 서울에어쇼 기간 중인 10월 22일 서울공항에서 발대식을 갖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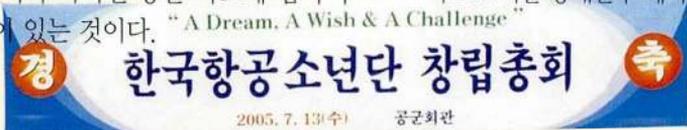
또한, 6개 대도시를 기점으로 지방조직을 만들고 지도교사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교재를 만드는 등 내년부터 활발한 항공소년단 활동을 위해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항공인 모두 우리의 친지 그리고 이웃들의 아들, 손자, 조카 등 모든 청소년들에게 항공소년단을 홍보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는다. 지면을 빌어 항공소년단에 가입한 청소년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지면이 허락한다면, 훌륭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흔쾌히 제공해주신 한서대학교 함기선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3개월간 불평하나 없이 자원봉사로 소년단 창설을 준비해 준 조순연, 김기윤, 이현숙 그리고 불같은 추진력으로 항공소년단 창설에 모든 열정을 다한 공군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최영훈 과장과 문채욱 중령에게 모든 공로를 돌리면서 고마움을 전한다.Ⓢ

### ※ 한국항공소년단 정보

- 홈페이지 : [www.yfk.or.kr](http://www.yfk.or.kr)
- 전화/팩스번호 : (02) 953-7543~4/ (02) 953-7545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6-81(4층)





## 엘비스 프레슬리의 군 입대

구성 : 김영실  
그림 : 김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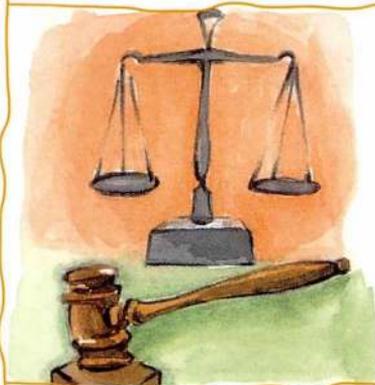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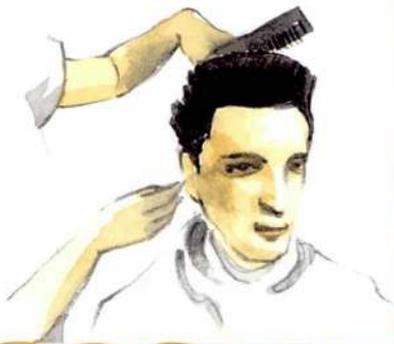
"엘비스는 군인으로서, 미국 시민으로서 훌륭한 남자였다."

군 복무를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윌리엄 테일러 미국제전력연구소 연구원의 말입니다. 1958년, 엘비스는 23살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 입대는 자칫 절정에 달한 인기를 한 순간에 뭉개뜨림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극성 팬들은 그의 입대를 반대했고, 백악관에 수백통의 편지를 보내 그를 징집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비스는 국가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군 당국도 '어떤 특별 대우도 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모두 참전했던 '카사블랑카의'  
험프리 보가트, 41세에 입대하여 무공 훈장까지  
받은 '바라강과 함께 사라지다'의 클라크 게이블과  
마찬가지로 젊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스타일수호  
엄격하게 대우해야 군의 기강과 국민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여 엘비스는 서독 프리드부르크의 제32전차대대에서  
평범한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2년간 어떤 음악활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비스의  
인기는 시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큰롤에 거부감을 갖고 있던  
기성세대들조차 '애국심 강하고  
건전한 청년'이란 인식을 갖게 되어 전역  
후에는 '국민가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부름에 응하는 것은 젊은 이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시민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영원한 '빨간 마후라'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을 찾아서

군수사령부 중위 박준하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1964년 제작된 영화 ‘빨간 마후라’. 말 그대로 ‘대박난’ 영화였다. 반세기가 지난 우리 세대에도 영화 ‘빨간 마후라’를 직접 본 사람은 적을지라도 영화주제가는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국민적인 노래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영화 속 주인공인 나관중 소령이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 영화 ‘빨간 마후라’의 탄생

공군을 주제로 한 작품 청탁을 받은 작가 한운사 씨. 한 작가가 유치곤 대령을 처음 대면하던 날은 구름이 짙게 끼여 곧 장대비가 쏟아질 것만 같은 악천후였다. 그럼에도 당시 유 대령은 한 작가에게 자기가 조종하는 T-33 훈련기에 동승하기를 권유했다. 한 작가는 혼비백산하여 줄행랑을 쳤고, 비행은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로 취소되었다. 이때의 경험으로 ‘빨간 마후라’의 주인공 나관중 소령의 윤곽은 탄생했다.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 2005년, 유치곤 장군과의 만남

지난 6월 15일 유치곤 장군님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 비슬산에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이 세워졌다. 평소 용감하고 호탕한 성격 때문에 '산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유 장군이 1965년 1월 1일 과로로 순직한 지 40여 년이 흘러 그의 업적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세워진 것이다.

마침 기념관을 찾은 날은 사진을 찍기에는 비가 오락가락하여 약간은 불안한 날씨. 그러나 기념관에 도착하자 비는 신기하게도 이내 그쳤다. 화창한 날씨는 아닐지라도 사진을 찍는 데는 무리가 없는 날씨. 유 장군님이 까마득한 후배를 알아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일까? 감사한 마음에 유 장군님의 동상을 향해 저절로 '필승!!' 하고 경례를 했다.

## “하늘에서 살다 하늘에서 죽고 싶다”

1927년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서 출생한 유 장군은, 1944년 3월 일본 육군비행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1949년 12월 공군에 입대해 6·25가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조종교육을 마치고 공군 소위로 임관했다.

그해 10월 F-51 무스탕 조종사로 첫 출격한 그는 한국 전쟁기간 중인 1953년 5월 30일 전투 후무한 기록인 203회의 출격으로 을지무공훈장(3회), 충무무공훈장(3회), 미국비행훈장(4회)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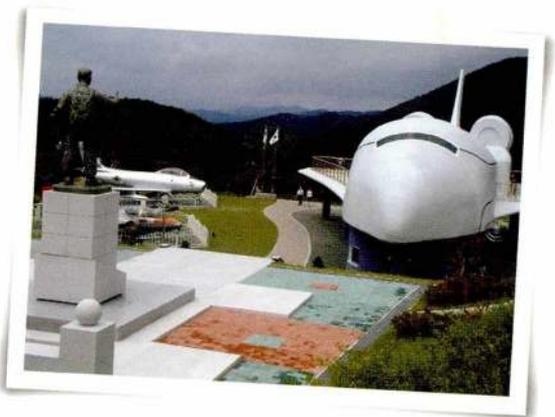
특히, UN군이 500여 차례 공격으로도 파괴하

지 못한 철교를 1,500피트(450m) 초저공 비행으로 폭탄을 떨어뜨려 세 동강 낸 1952년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있다. 그밖에 평양 대폭파 작전을 비롯 한국 공군의 주요 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유 장군의 아들인 고 유용석(공사 26기) 소령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전투기 조종사가 되었으나, 애석하게도 1982년 제주도에서 C-123 조종 훈련 도중 순직, 대를 이어 조국에 목숨을 바쳤다.

## 우주선 모양의 유치곤 장군 호국 기념관

기념관 주위를 둘러싼 병풍 같은 산, 유 장군의 동상은 저 멀리 비슬산을 감싸면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다. 동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우주선 모양의 기념관이 위치해



있고, 왼쪽에는 유 장군이 주로 비행하셨을 F-86과 T-37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은 유품과 사진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실과 영화 '빨간 마후라' 등의 애국 전쟁영화를 상영하는 영상실로 나뉘어 있다.

전시실에는 유 장군의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다. 직접 쓰던 지갑, 장갑 등에서부터 각종 훈장과 표창장들, 친필 서예 뿐만 아니라 100회 출격과 200회 출격 때의 기념사진, 승호리 폭파작전을 위해 출격 전 브리핑하는 사진 등 많은 역사의 순간들이 담겨져 있다.



사진 속의 유 장군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비행 작전의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감과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 당시의 비상감이 느껴지는 출격 직전 전우들과 지도를 보며 회의하는 사진, 200회 출격을 마치고 돌아와 동료들의 환호를 받으며 웃는 장군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절로 미소를 머금었다. 이곳에서는 지난 50여년 전 과거

의 일들이 현실처럼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기념관 제일 안쪽은 실제 조종석과 같이 연출하여 조종석에 앉아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관람하는 내내 왜 기념관의 모양을 우주선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종 연출석 창문을 통해 유치곤 장군의 동상을 바라보며 조종 연습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유 장군은 당신이 전투기에 목숨을 걸고 조국의 하늘을 누비며 나라를 경각에서 지켜냈듯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우주선을 타고 마음껏 우주공간을 누비는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되어 우리나라를 빛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님의 육신은 갔어도 나라를 위한 붉은 마음은  
이 동상과 더불어 영원한 군신(軍神)으로  
찬란히 솟아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이 비슬산을 가득 채워  
국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

나라를 위해 바친 넋은 푸른 하늘에 반짝이고  
불꽃같이 타오르는 충절(忠節)은 만고에 푸르리니  
이제야 님의 뜻은 비슬산에 꽃피우리라.

- 유치곤 장군 추모시 -

### 기념관 주변의 볼거리들

기념관은 비슬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재로 둘러싸여 있다. 비슬산을 휘돌아 나가는 낙동강과 어우러져 자연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827년(신라 흥덕왕 2년) 창건했다는 유가사, 매년 봄이면 7만 여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해발 1,084m 비슬산 정상부근 30만평에 흐드러지게 피는 참꽃(진달래) 군락지.

자연속에 숨쉬고 계신 유치곤 장군님의 기념관을 둘러보고 나오는 길은 오랜만의 나들이 덕분인지 온몸이 하늘을 날아오를 듯 상쾌했다. 바쁜 일상 속에 만날 수 있었던 한 순간의 여유, 이 가을 여러분 모두에게 추천한다. Ⓡ



## 9월에 가 볼 만한 문화행사

가을의 은은한 향기가 거리 곳곳에 퍼지기 시작하는 9월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잘 어울리는 달이다. 곁게 물들인 한지처럼 은근한 우리 문화의 향기를 이번호 '문화가 산책'에서 만나보자.

### 찬연한 조선왕조 보물 한 자리에... 국립고궁박물관 개관

조선 왕실의 고급 문화유산들을 전시·연구하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지난 8월 15일 문을 열었다.

서울 경복궁 안 옛 국립중앙박물관 건물에 둥지를 튼 이 박물관은 덕수궁 석조전의 궁중유물 전시관을 확대 개편한 시설. 4대 궁궐과 종묘, 능묘 등의 왕실유물들을 집대성한 궁궐 문화의 요람이다. 소장품은 왕실기록물과 건축장식, 생활·제례유물 등 4만점. 1, 2층과 지하층의 옛 중앙박물관 전시실을 재정비한 약 2,000평 공간에서 빈갈아 유물들을 선보이게 된다.

상설전시는 '왕실의 위엄과 권위, 예술과 생활' 이란 큰 줄기 아래 5개 영역으로 펼쳐진다. 국내외 백자 달항아리 명품 9개를 전시하는 개관 특별전도 9월 25일까지 열린다.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상설전시

(개관특별전 '백자 달항아리' 전은 9월 25일까지)

관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는 (02)3701-7500,

홈페이지는 [www.gogung.go.kr](http://www.gogung.go.kr)

### 우리미술의 발자취...

####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미술 100년' 전

지난 1세기 동안의 우리 근현대미술의 궤적을 되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서 열리는 '한국미술 100년(1부)' 전은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자리다. 내년엔 현대 시기를 다룬 2부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엔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일본 작가들의 작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광복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인계돼 현재 소장품으로 분류된 이왕가미술관 소장품 중 일본 화와 공예품은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전시된바 있다. 유화 8점과 조각 4점 등 총 31점이다.

그 외에도 최지원의 미공개작 '걸인과 꽃' (1939)도 전시된다. 이 작품은 1939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목판화로, 최초의 판화 수상작. 최지원은 평양에서 활동하던 작가로 조선미전에서 입선한 그해에 사망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0월 23일까지

관람시간은 화·수·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토·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문의는 (02)2022-6046,

홈페이지는 [www.moca.go.kr](http://www.moca.go.kr)



①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 내부

② 국립고궁박물관 '백자 달항아리' 특별전



③ '한국미술 100년' 문신작 '고기잡이'

④ '한국미술 100년' 최지원작 '걸인과 꽃'



#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방법

공군본부 법무감실 중위 박재형

평소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남다른 '나 효자' 군. 나 군은 어떻게 해서든 힘들어하시는 아버지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은행 대출 보증을 섰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셔서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은행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나 군은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군 복무를 위해 공군에 입대하였지만, 제대 후에 취직은 할 수 있는지, 학교는 다시 다닐 수 있는지, 고민이 많다.

장기간의 경기 불황에 따라 나 군과 같은 고민을 가진 젊은 신용불량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젊은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 신용회복제도 개관

신용회복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개인워크아웃 제도', '개인회생 제도', '개인파산 제도'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시중 금융기관들의 협약에 의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빚을 한꺼번에 조정(상환일자 연기,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일부면제의 방법으로 조정함)하여 개인신용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파산 제도'는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개인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서 신용을 회복하는 제도이다. 각 제도의 차이점은 표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크



다. 나 군의 경우도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다. 나 군과 같은 젊은 군 장병이라면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 군 장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다행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올해 9월 30일까지 군 장병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젊은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은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같으나, 신용회복지원요건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비용이 저렴하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지원 대상이므로 개인사채를 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하고, 장교와 부사관은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 만약 장교나 부사관의 경우라면

만약 장교나 부사관이 나 군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나, 문제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여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므로 장기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장교나 부사관은 일정한 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므로 개인회생제도의 지원 대상이 되는데,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제도와 같은 불이익 없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용해 볼 만하다. Ⓣ

구 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시행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법원	법원
대상채권자	금융기관 협약을 가입한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제한 없음(사채포함)	제한 없음(사채포함)
채무범위	5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5억원 이하)	제한 없음
대상채무자	신용불량자이며,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 5억원 이하인 자	일정한 소득을 가진 급여소 득자 및 영업소득자(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함.)	제한 없음
채무조정 방법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자의 총 채무액을 일괄 조 정을 통해 장기 저리의 분 할상환 또는 면제함.	8년 이내 변제기간으로 채 무자가 정한 변제계획에 의 해 변제	파산선고 후 채무자를 면책 시켜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 작할 수 있도록 함.
신용불량 회복시기	신용회복지원확정시	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시	법원의 면책결정시
신청방법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 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개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원에 신청	개인이 직접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원에 신청
신청비용	신청접수비 5만원	인지세 및 변호사 이용시 변호사 비용	인지세 및 변호사 이용시 변호사 비용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 신속함.</li> <li>- 비용이 적게 듦.</li> <li>-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 안내가 잘 이루어 짐.</li> <li>-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 신용상담 및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 (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li> <li>-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효력이 강력함.</li> </ul>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li> <li>- 소득에 비해 부채가 큰 경우는 신청이 어려움.</li> <li>-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만이 지원대상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li> <li>- 비용이 많이 듦 (파산의 경우 변호사 선임시 150만원 이상)</li> <li>-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효력으로 일정한 불이익 받음.</li> </ul>	



## 가을 운동, 발목 조심하세요!

제3방공포병여단 군의관 대위 강 지 호

무더운 여름 더위에 지쳐 실내에서 간단한 웨이트트레이닝만 했던 '운동광' 병장. 가을에 들어서 조금씩 날이 선선해지자 간만에 기분 좋게 운동화 끈 동여매고 조깅을 나섰다. 오랜만에 내딛는 아스팔트. 반가운 마음에 힘차게 속력을 내다가 삐끗!! '이쯤이야' 하고 조깅을 조금 더하다가 나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운 병장은 발목에 깃스를 했다.

흔히들 '발목이 삐었다'고 하는 '발목염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정도로 매우 빈발하는 손상 중 하나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달리기를 하다가 발목이 꺾이는 것을 흔히 경험하게 되며, 격한 활동이 많은 젊은 층, 특히 장병들 같은 경우 심하게 발목손상을 입

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발목염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초기에 적절하게 처치를 하지 못해 오랫동안 고통받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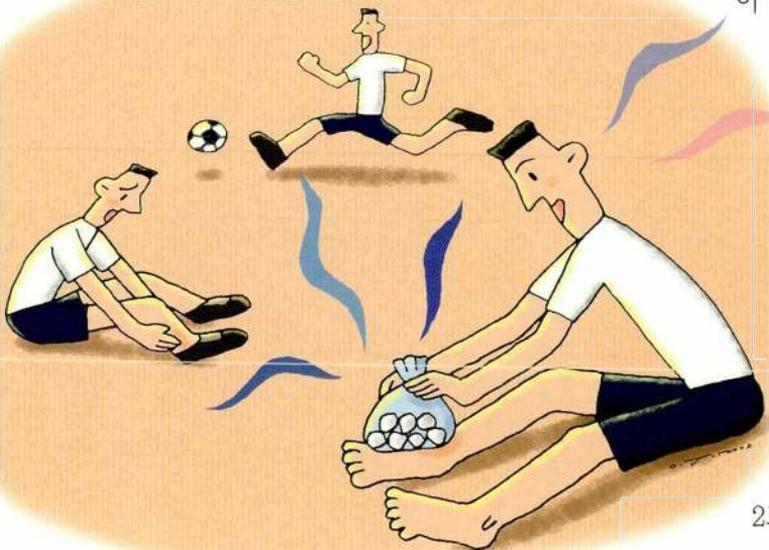
야외 활동량이 증가하는 가을, 혹시 모를 발목염좌에 대비하여 그 초기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발목손상은 대개 발목 바깥쪽에 발생

발목을 움직여 보면 위아래 쪽으로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좌우로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제한된다. 이는 발목관절의 안쪽, 바깥쪽으로 뼈에 인대가 붙어 있어 발목의 안정성을 높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쪽의 인대는 굉장히 짧고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어 독자적인 손상이 거의 없는 반면에, 바깥쪽의 인대는 흔하게 손상을 입게 된다. 즉, 대개의 경우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가서, 발목 바깥쪽에 손상을 입어 붓고 아픈 경우가 많다.

### 발목염좌 증상에 따른 치료법

발목염좌는 그 손상 정도에 따라, 극히 소수의 인대 섬유가 단절되어 불안정성이 거의 없이 경미한 제1도, 인대 섬유의 대부분이 손상되어 불안정성을 보이는 제2도, 인대가 완전히 단절된 제3도



로 분류한다.

일단 발목손상을 입은 경우 방사선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그 손상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도의 경우에는 단순압박붕대로 고정하는 정도의 치료로 충분하고, 제2도는 3~4주간의 석고 부목 고정이 권장되며, 제3도의 경우 만성 불안정성을 예방하기 위해 4~6주간 석고 고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이다.

### 초기 치료가 중요한 발목염좌

발목염좌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초기에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발목이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 경우 단순히 일상생활을 할 정도의 걷는 것만으로도 쉽게 발목이 꺾이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를 '만성 재발성 염좌'라고 하는데, 조사결과 약 40%까지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그렇다면 발목염좌의 초기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딱 한 단어만 외우면 된다. 바로 RICE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원칙.

### Rest - 안정 ●●●

일단 발목이 꺾이는 경우,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 좋다. 손상부위에 부목을 대는 것은 국소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 또한 통증을 참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살이 찌서 다리에 무리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체중조절을 해야 한다.

### Ice - 얼음찜질 ●●●

발목을 다친 후 첫 24~72시간 동안은 매 2~3시간마다 20분씩 얼음찜질을 하면 붓기가 빨리 가라앉고, 통증감소에도 효과가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얼음이 직접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2~3시간의 휴지기를 두어 피부 동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Compression - 압박 ●●●

발가락부터 종아리 중간까지 압박을 하면 부기를 빨리 가라앉힐 수 있다. 압박붕대를 감을 때는 피부 접촉면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하여 피부에 수포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하며, 특히 너무 심한 압박으로 혈액 순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Elevation - 높이기 ●●●

베개를 2~3개 정도 받쳐서 다리를 15~20cm 정도 올려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놓는 것도 부기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필요하다.

### 재활 · 회복운동

이제 붓기가 빠지고, 통증이 참을 만해지면, 발목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회복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회복운동은 수건을 이용해 발을 당기는 스트레칭이나, 발목으로 알파벳을 쓰는 등의 운동이 적합하다.

1~2주가 지나면, 본격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발가락 끝으로 걷거나, 발뒤꿈치로 걷는 운동이 이 시기에 적합하다.

발목의 힘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가볍게 뛰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속도를 높여 나가고, 마지막으로 앞뒤로 반복해서 뛰는 운동을 하면 정상적인 회복 운동 프로그램이 완성된다.

인체의 각 부분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었지만, 특히 활동량이 왕성한 사람들에게 다리가 불편한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 건강을 위한 노하우는 절대 자신의 몸을 과신하지 않는 것 한 가지 뿐이다. 건강에 자신감은 금물이다. 작은 증상이나 작은 상처에도 호들갑을 떠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

# “韓·美 동맹군 만찬과 한 편의 한국영화” (Dinner and a Movie)



美 공군중령 리 브라이언트(미 공군 제386항공의무전대)  
Lt Col. Lee Bryant, USAF



공통적인 인류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

이런 많은 동맹국과의 친밀한 교류들 속에서 특히 내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국문화클럽’이 주최하고 한국 공군 다이만부대 친구들과 함께 했던 ‘韓·美 동맹군 만찬과 한 편의 한국영화 감상’이었다.

이날의 저녁 식사 메뉴는 미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한국 전통음식인 비빔밥이었다. 대접에 담겨 있는 여러 종류의 야채와 어우러진 비빔밥은 환상 그 자체였다. 저녁 식사에 이어 우리가 본 영화는 ‘태극기 휘날리며’였다. 그 영화는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로 전장에서의 진한 형제애를 통해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그린 영화이다.

이곳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에서 우리 美 공군은 여러 동맹군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동맹국 만찬과 비행단 지휘관 회의 등 여러 공식 모임에서 우리는 다양한 파트너들을 만나서 기지 운영과 항공작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나눈다.

또한, 운동, 야유회, 외국어 강좌와 기지내 여가 활동 등 격의없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동맹국 파트너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도 다른 국적과 언어, 그리고 상이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우리는

## 나를 감동시킨 한국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를 본 나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각인될 만큼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비록 한국어로 나오는 배우들의 대화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영어 자막을 통해 영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강렬한 영상과 인간적인 이야기는 언어를 초월하여 나의 가슴으로 깊이 전달되었다.

이 영화는 실로 웅장한 영상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보다 사실적인 전장을 그려내기 위해 최대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전투 장면

을 필름에 담으려 치열하게 노력하였으며, 무엇보다 강렬한 특수 효과들은 전쟁의 잔혹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영화의 각 장면에서 보인 창조적인 영상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진태와 진석 형제의 가족에게 몰아닥친 잔혹한 파괴와 죽음은 무엇보다도 보는 관객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이 영화는 결혼과 진학이라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두 형제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악몽, 한국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 피난길에 우연히 강제 징집되어 오른 입영열차, 그리고 두 형제의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실제로 느껴보지 못한 이념과 사상이라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 전장에 던져진 형제의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묘사하고 있다. 죽음의 전장 속에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형 진태는 서서히 본래의 선량하고 정감어린 모습을 잃어 가게 되면서 동생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 ‘동족상잔’이라는 동일한 비극, 미국의 남북전쟁

영화를 보는 동안 미국의 남북전쟁이 떠올랐다. 미국의 남북전쟁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를 증오하고 죽였으며, 수많은 병사와 무고한 시민들이 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통해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처럼 한국전쟁도 일상생활 속

에서 이념의 의미를 찾기 힘든 그저 평범한 소시민에게 이데올로기를 위해 친구와 이웃사촌마저 무참히 살육하도록 강요했다. 이처럼 영화는 이념과 사상이 지배했던 지난 냉전시대의 한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성취와 같은 거창한 전쟁의 의미를 굳이 되새기지 않더라도, 전쟁은 우리 시대의 현실이다. 그러나 진태와 진석의 가족 이야기는 그러한 전쟁의 또 다른 현실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을 잘 나타낸 이 영화는 전쟁 이야기를 가장 진솔하게 담은 명작으로 남을 것이다.

###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 영화에서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전장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흘리는 피와 가족들과의 이별, 그리고 우리의 마을과 도시가 파괴됨을 목격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아픔들을 담담하게 극복하고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이진태와 그의 가족들은 인간 영혼의 치유력과 타고난 생존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쟁의 잔인한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며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존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닐까? 이것이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류 공통의 가치’ 인 것이다. Ⓣ



글쓴이 소개 :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 제386항공원정단 항공의무전대 환자항공후송팀(CASF: Contingency Aeromedical Staging Facility) 간호장교 겸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리 브라이언트 중령(Lt Col. Lee Bryant, 52)은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아 자체적으로 미장병 대상 ‘한국문화클럽’을 결성하여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다이만 장병들에게는 영어동아리의 강사로도 유명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한국 군무를 희망하고 있기도 하다.

# 두려움은 지혜를 두려워한다

외화번역가 이 미 도  
 〈이미도의 등 푸른 활어영어〉 저자

‘위험에 맞서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변화를 만드세요.’

이걸 모두 뒤집어서 뜻을풀이를 해보면?

‘위험에 맞서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

## 할리우드 스타의 명언

영화 〈사관과 신사〉, 〈귀여운 여인〉, 〈시카고〉를 연상하면 ‘자동-뿡’으로 떠오르는 스타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도회적인 중후한 풍모를 뽐어내는 리처드 기어(Richard Gere)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가 지난해 연말에 〈셸 위 댄스? Shall We Dance?〉에 출연한 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Fear is my greatest motivator.” Motivator는 그 뜻이 ‘동기를 주는 것’ 또는 ‘자극을 주는 것’ 이니까 “두려움은(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자극제다”의 뜻이 되겠군요.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단번에 이 영화에 출연을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시카고〉에서 탭댄스 연기를 잠깐 선보이기는 했지만, 그에게 “저와 춤추실래요?”라며 손을 내민 영화는 고난도의 댄스 실력을 요구했기 때문이지요. 〈댄서의 순정〉에서 문근영이 황홀하게 실연(實演)해 보인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들다는 탱고, 왈츠, 퀵스텝, 스윙 춤을 너끈하게 마스터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뜻밖에 찾아온 기회를 포기한다면 훗날 그런 좋은 작품에 출연할 기회가 영영 안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두려움을 떨쳐낼 자신감이 생겨났다고 하는군요.

##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명언

미국인이 즐겨 하는 말 중에 ‘Take a risk,

Take a chance, Make a change.’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에 맞서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변화를 만드세요.’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모두 뒤집어서 뜻을풀이를 해보면 어떨까요? ‘위험에 맞서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고, 그러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가 되겠지요?

그렇기에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Russell, Bertrand Arthur William)도 “Conquering fear is the beginning of wisdom.”이라는 명언을 남긴 거겠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라는 뜻이 고요.

‘영문법 3주 완성’이라든가 ‘3개월 안에 영어 회화 떼는 비법’ 따위의 문구가 실린 광고에 현혹되는 분들이 많은 증세처럼 단기간에 영어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조급증(hurry sickness, 일명 ‘허리 병’) 못지 않게 영어공부에 걸림돌이 되는 건 영어에 대해 지나치게 겁먹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두려움(risk)을 떨쳐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chance)를 얻지 못하게 되며, 그러면 영어를 더 잘 해서 자기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줄 변화(change)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겠지요.

## 삼순이가 ‘읽어주고 들려준’ 명언

리처드 기어와 버트런드 러셀로부터 두려움과

지혜에 관한 ‘지혜로운’ 명언을 만난 김에 wisdom이 키워드로 쓰인 명언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MBC의 인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은 출판계에도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더군요. 별떼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다행스럽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지난 2/4분기 중 가구당 책 구입비가 최초로 1만원 밑으로 급락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올 만큼 출판계와 책시장도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이니까 말이지요. 여주인공 삼순이가 조카에게 읽어주거나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서 만난 글들이 화제가 되면서 미하엘 엔데의 <모모 Momo>와 류시화의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 전국 각처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있습니다.

<모모>에는 이런 글이 들어있습니다. “모모는 아무 말도 안 해. 듣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그게 중요해. 귀 기울여 듣는 거.” 이 글의 의미에 딱 어울리는 명언을 남긴 음악가가 있습니다.

### 천재 기타리스트의 명언

제프 백, 에릭 클랩튼과 더불어 한 손으로 꼽아도 될 만큼 유명한 기타리스트는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cks)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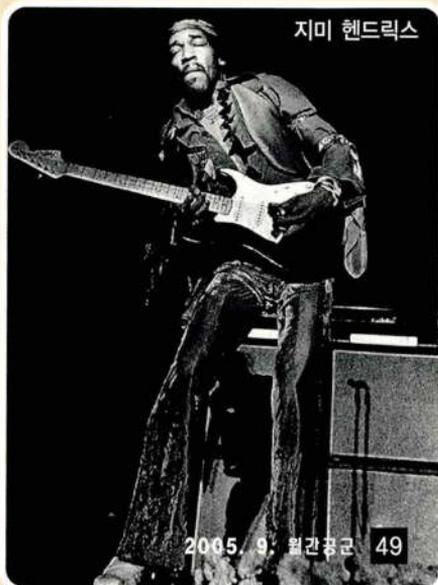
생전에 천재 기타리스트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초등학교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그가 남긴 명언은 “Knowledge speaks, wisdom listens.”입니다.

동사인 speak에는 ‘지껄이다’의 뜻도 있으니 까 ‘지식은 지껄여대고 지혜는 경청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참 많은 걸 함축하는 명언이 아닐 수 없지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라는 충고로도 들리는군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장난’, ‘말 바꾸기’로 유난히 시끄러운 요즘. ‘말조심’ 하면서 새겨들어야 할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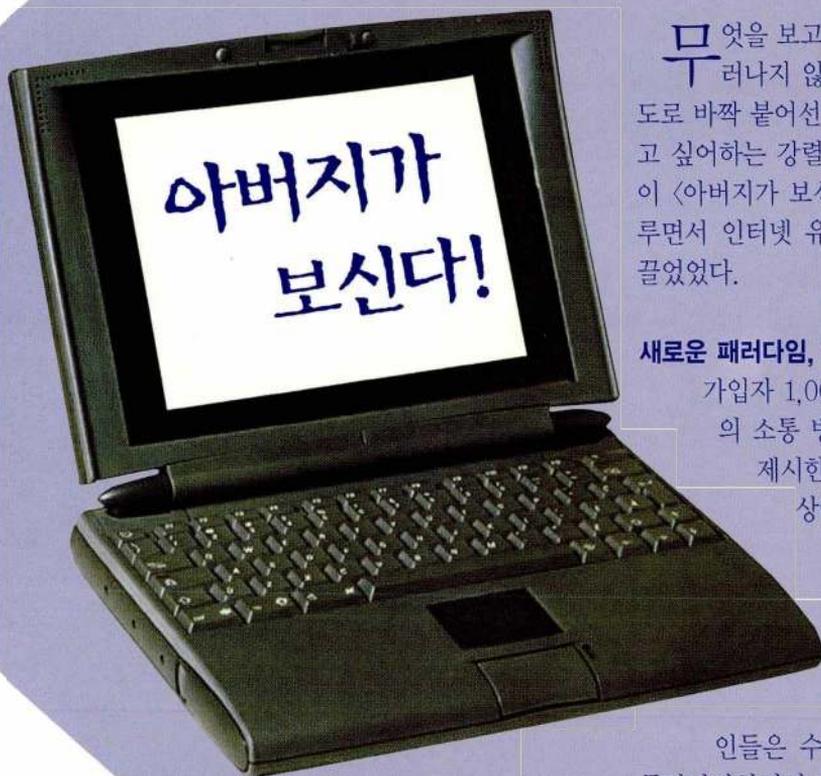


미하엘 엔데 <모모>



지미 헨드릭스

최근 인터넷을 떠도는 사진 한 장이 있다.  
방문 한 가운데 딱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만 뚫린 작은 창!  
그 창을 통해서 방안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탤런트 노주현...  
그리고 사진의 제목은 <아버지가 보신다!>!



방송작가 모은 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방안의 상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작은 창에 꼭 들어갈 정도로 바짝 붙어선 얼굴, 그리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이 담긴 노주현의 눈빛이 <아버지가 보신다>는 제목과 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인터넷 유머 게시판에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 새로운 패러다임, 개인 미니홈피

가입자 1,000만 명을 훌쩍 넘기며 타인과의 소통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개인 미니홈피! 이 사이버 세상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

개인 홈페이지의 가장 큰 재미는 바로 다른 이의 사생활을 마음껏 엿볼 수 있다는 짜릿한 쾌감이다. 헤어진 연

인들은 수시로 과거 연인의 미니홈피를 들락날락하하면서 나 없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철저하게 체크한다. 헤어진지 1년이 지난 연인들의 근황도 바로 어제 만난 듯 줄줄이 꿰 수 있는 시대다. 현재 진행 중인 연인들은 또, 어떨까? 남자의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홈피까지 살살이 뉘저가며 연인에 관해 속속들이 알고 싶어한다. 혹은 엿보기의 대상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 없다.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업, 나이,



가입자 1,000만 명을  
 훌쩍 넘기며 타인과의  
 소통 방식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개인 미니홈피!  
 이 사이버 세상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

친구관계, 성격까지~ 조금만 조사해 보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은 부처님 손바닥 보듯 훤히 보인다. 남의 사생활, 개인적인 부분을 엿보고 싶어 하는 관음증의 욕망이 사람들을 잘 훈련된 사이버 공간의 비밀 스파이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 사이버 공간이 엿보기 천국이라면, 현실은 어떨까?

조직적인 엿보기 사건, 일명 'X-파일'로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 요즘 상황에서는, 현실 또한 만만치 않다. 경찰이 허가기간을 넘기거나 임의로 긴급감청을 실시하는 등 불법 감청을 해오고 불법 도청이나 감청을 막아야 할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수사 기관의 불법 도청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침을 시달렸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낸 애인의 핸드

폰 비밀번호, 몰래 훑쳐본 문자 수신함에서 낯선 여자의 심상치 않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어떨까? 메시지의 내용은 둘째치고 양쪽 모두, 서로의 마음에 남긴 상처와 깨어진 신의는 회복되기 어렵다.

불법 도청과 감청으로 얻어낸 자료도 마찬가지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엿들은 모든 자료들은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언제 어디서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믿음을 잃어버린 사회, 불신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제발 똑바로 하라!**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 ⚡

## 인간과 첨단기계의 대결,

# ‘스텔스’ (STEALTH)

영화평론가 김지훈

### 초특급 액션, 이젠 하늘이 그 무대!

〈분노의 질주〉와 〈트리플 X〉의 성공으로 할리우드에서 알아주는 액션영화감독이 된 롭 코헨. 감독 이외에도 레이 찰스의 전기영화 〈레이〉로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제이미 폭스, 〈텍사스 전기톱연쇄살인사건〉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키포인트였던 제시카 비엘, 그리고 조시 루카스까지, 〈스텔스〉는 정상의 자리로 발돋움하는 배우와 감독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보기 드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다가 한국용 특별 편집판까지 만든 정성이 가득한 영화이기도 하다.

### 무소불위의 캐릭터 ‘스텔스’

스텔스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미래형 전폭기다.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해 임무를 완수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통한다. 사전적으로 ‘은밀’이나 ‘비밀’이라는 뜻의 ‘스텔스(Stealth)’는 레이더에서 사용하는 전파를 흡수하거나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군사 기술, 혹은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기를 지칭한다.

군대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걸프전 당시 스텔스의 활약으로 미국이 얼마나 승승장구했는가를 기억하기란 어렵지 않다. SF액션 〈스텔스〉는 새가 지나가는 듯 레이더에 미약하게 감지되는 스텔스의 비범한 능력을 한껏 부풀려 무소불위의 캐릭터로 탄생시켰다.

###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가까운 미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세 명의 파일럿으로 이루어진 텔론 편대, 헨리(제이미 폭스), 벤(조시 루카스), 카라(제시카 비엘)는 개인기뿐 아니라 팀워크까지 뛰어나다. 여기에 새로운 팀원으로 합류한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 에디. 하지만 악천후 속에서 강행된 작전 중 돌발 상황에 처한 에디는 인간의 조종은 물론 정비마저 거부하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들킨 병기에서 위협적인 적으로 돌변한다.

이제는 적이 된 예전의 동료와 맞서게 된 헨리, 벤, 카라는 각자의 특기를 이용해 막무가내 스텔스를 막으려 하지만 스텔스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 인간과 첨단 기기의 함수관계

영화 〈스텔스〉는 이 첨단 비행기를 소재로 인간과 과학의 역학관계를 조명한다. 인간이 조종하는 스텔스기와 인공지능이 조작하는 무인 스텔스기의 협력과 충돌이 흥미롭게 펼쳐지는 것.

인간은 이성의 작용으로 민간인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다. 공습작전은 실패다. 에디는 이런 나약한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목표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 에디가 인간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에디는 입력된 목표 자체의 오류 가능성을 식별할 수 없다. 영화는 양자의 강점과 약점을 포착해내면서 인간과 첨단 기기의 함수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기계)과 인간을 동등한 위

치에 설정한 것이 이채롭다. 에디는 텔론과 공동 임무를 수행하는 편대원이다. 에디는 동료인 3대의 텔론을 배신하고 편대를 이탈하지만 다시 동지로 복귀해 적을 물리치기도 한다. 그것은 동일인이 은인이 되기도, 원수가 되기도 하는 인간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에디는 조국을 위해 복무하다가 기밀을 적국에 팔아 넘긴 영화 속 지휘관과 대칭을 이루는 캐릭터다. 기계의 오류와 인간의 실수를 나란히 제시하는 구성이다.

고전 SF〈스페이스 오디세이2001〉과 〈매트릭스〉 등에서는 인간을 등진 첨단 기기는 끝내 인간과 화해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첨단 인공지능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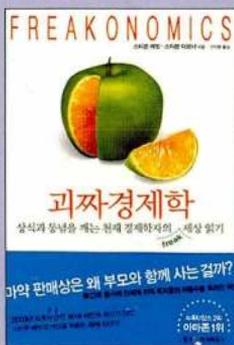
텔론의 조종팀원이자 연인 사이인 카라와 벤의 운명은 못 여인을 전전하는 다른 팀원 헨리나 사랑을 모르는 에디와는 다른 운명에 처할 것임이 일찌감치 예견된다. 사랑의 부재는 종말도 빠르다.

### 이 영화의 최대 강점, 항공액션

스텔스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석에 앉은 카라의 공중탈출 장면은 압권이다. 조종석 탈출이나 공중전 장면들은 '탑건'보다 속도감과 박진감에서 뛰어나다.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와 알래스카 설원, 호주와 중국, 태국의 산과 바다, 도시 풍경들이 비행기의 배경화면으로 속도감을 배가시키고 있다. 지상에 밀착해 나는 전폭기의 빠른 속도가 먼지를 일으키거나 지붕을 벗겨내는 장면들도 볼 만하다. 〈트리플 X〉에서 보여준 코헨 감독의 액션연출이 여기서도 빛을 발했다.

〈타이타닉〉의 특수 효과를 담당했던 디지털 도메인이 처음 선보이는 8백개의 특수 효과가 속속들이 박혀 있는 하이테크 액션영화 〈스텔스〉. 주연배우들이 나름의 개성을 선보이는 가운데, 섹시하면서도 위협적인 스텔스의 자태가 금속성 강한 사운드와 함께 액션 체감 지수를 높인다. 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청량제 같은 영화다.👉





## 괴짜경제학

- 스티븐 레빗, 스티븐 더브너 공저 -

서평 : 시나리오 작가 박 동 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독자들이라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반, 그야말로 세기말적 분위기의 미국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장기간의 불황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사범, 길거리마다 10대 청소년들이 총을 들고 다니며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학자들은 이들을 슈퍼프레데터(초포식자)라고 부르며 미국의 종말을 예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미국의 청소년 범죄율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폭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 흥미로운 주제, 경제학이 재밌다!

오늘 소개할 「괴짜경제학」의 저자 스티븐 레빗은 '낙태'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놓는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들으면 펄쩍 뿜 이야기지만, 레빗은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잠재적 범죄그룹에 들 확률이 매우 높으며, 때문에 1970년대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그와 같은 '원치 않는 아이들'의 탄생이 급격히 줄어 범죄 역시 줄어들었다는 논리를 내놓는다.

레빗의 이런 주장이 어떤 '영감'에 의해서 얻어진 것은 아니다. 주장의 배경에는 범죄발생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이들 하나하나를 분석해 상관요인을 정확히 분석해낸 레빗의 명징한 이성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레빗이라는 현자가 현대 사회문제

에 대해 '사실은 이렇다'고 가르침을 주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다.

### 책의 중심 주제, 저자가 서문에 밝혔다시피 '없다'

갱단이 어슬렁대는 흑인 빈민가에서부터 일본의 스모경기장까지 사회의 온갖 분야를 넘나들고 있는 이 책에 단 한 가지 통일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각종 문제를 해석하고 있는 경제학에 기초한 스티븐 레빗 특유의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것이 책의 제목인 'Freakonomics('Freak' + 'Economics'의 조합어)이다.

### 매우 실용적인 발상의 전환

평범한 사람이 레빗과 같은 혜안을 지니기란 매우 어렵다. 그가 파헤친 '진실'들은 대부분 통계적 의의가 있을 정도의 규모를 지닌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그 분석방법 역시 전공자가 아니라면 접근하기 난망하다.

그럼에도 이 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독자들의 시선을 '당연히 그렇겠지'에서 '과연 그럴까?'라는 쪽으로 바꿔 놓는다는 데에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어떤 사회적 정의적 가치에 대한 입장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실생활에 무슨 상관이나고 반문할 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책에서 증명됐듯이, 이런 발상의 전환은 자신의 집이 과연 저렴한 가격에 팔리는 것인가를 파악할 수도 있게 해주는 매우 실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 낙엽을 기다리는 오솔길에서

## 9월



하얀 이슬 산들바람 가을을 보내주자  
 발 밖의 물과 하늘 청명한 가을일레  
 앞산에 일새 지고 매미소리 멀어져  
 막대 끌고 나와 보니 곳마다 가을일레.

이덕무의 사계시(四季時) 중

제73기상전대 대령 엄영경

**밤** 낮 숨쉬 여유조차 없이 몰아치던 태양의 열기가 조금씩 제풀에 지칠 무렵 우리의 치열했던 여름 한 철은 화려하게 지고 있다. 이제 9월. 짧기에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아쉬움에 눈물 짓게 하는 그리움과 알찬 오곡백과의 풍성함으로 넉넉한 정(情)이 마음 가득 번지는 가을의 문턱이다.

### 9월, 활동하기 좋은 계절

9월은 가을로 접어드는 첫 달로 여름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급속히 약해지고 점차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기온은 17~27℃로 시간이 흐를수록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강수량은 150mm로 중순 이후 급격히 감소하지만 초순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의 내습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겠다.

하순에는 맑고 청명한 날이 지속되면서 안개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항공작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을은 야외활동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로 긴장이 늦추어지고, 심신이완으로 인한 사고 잠재요인이 많은 만큼 항상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이니 개인 건

강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가을은 포도가 가장 맛있는 계절

절기(節氣)로는 농작물에 흰 이슬이 맺히고 고추는 선명한 붉은빛을 더욱 띄게 된다는 백로(白露)가 7일이고,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 들녘에서는 곡식들 여무는 소리가 들릴 듯하다는 추분(秋分)이 23일이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秋夕)이 18일이다.

백로가 되면 밤의 기온이 내려가고, 대기중의 수증기가 풀잎에 이슬로 맺혀 완전한 가을 기온이 나타난다. 그리고 백로에서 추석까지는 포도순절(葡萄旬節)이라 하여 포도가 가장 맛있는 포도의 계절이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므로 비로소 여름은 가고 가을이 왔다는 사실을 실감케 된다.

가을은 치열한 여름 끝에 와서인지 차분하게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색의 계절이다. 시리게 푸른 코발트빛 하늘과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이 풍요로움으로 충만해지는 듯하다. 짧기에 안타깝게 아름다운 가을.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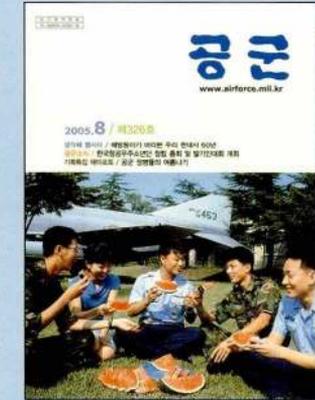


〈세계의 우주력-우주 왕복선〉이 가장 흥미 있었습니다. 역시 전문잡지라 뭘 하나를 다루어도 알차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어설프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 해남군 권학희

남성들이 새해 소망으로 주로 금연을 내세우지만 점차 그 의지가 사라져 다시금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에세이〉 '죽음의 신의 선물, 흡연'을 통해 흡연의 폐해와 금연의 어려운 점을 소상히 알려줘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에게 유익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김현숙



〈공군 장병들의 여름나기〉를 통해 밝고 든직한 우리 공군 장병들의 모습을 보니 힘찬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 주십시오.

전남 여수시 박수업

아무래도 가장 흥미로웠던 기사는 10비에서 촬영한 〈청춘! 신고합니다〉의 뒷이야기인 거 같아요. TV에서 보여지는 그날의 열정도 좋았지만 기자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설렘도 무척 신선하더군요!

서울시 강남구 박진선

〈보라매 단상〉이 가슴에 와 닿네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에서도 퇴직하거나 퇴사 후 여유로운 모습이나 잘 나가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으쓱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그 선배님의 솔직함이 정말 부럽네요. 저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한번 뒤돌아 생각해보게 됩니다.

대구 달서구 장하숙

80대의 노병(老兵)입니다. 1949년 초여름 김포평야에서의 내무생활과 6·25사변시 후 퇴작전 등의 추억. 그러나 2005년 오늘날 공군의 발전상은 월간 공군을 보면 실감이 나고 가슴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교양지로 우수한 공군지를 편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예천군 최운창

〈청춘! 신고합니다〉에 관한 글이 제일 눈에 들어왔다. 녹화현장의 분위기가 글로 잘 표현되어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같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충남 보령시 신인철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

3 2 1 - 9 2 9

##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

□ □ □ - □ □ □



수 신 : 참모총장  
참 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 신 :

# 공군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호) 6233, 02) 506-6233

#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59쪽에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른 그림 찾기 정답(5군데)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문제는 59쪽에

# 다른 그림 찾기

## ▶ 이번호 문제



• 사진설명 : 한국 최초 초음속 전투기 F-5A/B 고별 비행



▶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 보세요.

## ▶ 지난호 정답



## ▶ 지난호 당첨자

- 전남 해남군 권학회
- 울산광역시 중구 김현숙
- 전남 여수시 박수업
- 서울시 강남구 박진선
- 충남 보령시 신인철
- 충북 청원군 상병 이운기
- 서울시 강남구 이은정
- 강원도 원주시 상병 임현철
- 대구 달서구 장하숙
- 경북 예천군 최윤창

「공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난호에도 많은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도 엽서를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내실 곳 : 우편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자  
마 감 일 : 9월 20일까지

# 맥아더와 인천 상륙작전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안 정 훈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UN군이 인천에 상륙했다. 20일에는 주력 부대가 한강을 건넜다. 26일 정오에 한국군 해병대가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서울이 완전 탈환되고 작전이 마무리됐다.

## 인천 상륙작전,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단행한다”

‘크로마이트(Chromite)작전’으로 명명된 인천 상륙작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내부의 반대가 심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항공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항속 거리 밖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 이유였다. 맥아더 장군은 미 합동 참모부를 비롯한 각 군의 수뇌부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사항들이 본인에게는 성공을 확약해 주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도 이처럼 무모한 공격을 시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방비가 소홀할 것입니다. 고로 이 허점을 친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단행할 것입니다.”

결국 미군 수뇌부도 동의했고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 맥아더의 상징, 모자와 파이프와 선글라스

1880년 A. 맥아더 장군의 아들로 태어난 맥아더 장군은, 1903년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여 사단을 지휘했다. 1930년 대장으로 진급했고 7년 후 퇴역했다. 대일 관계가 급박해진 1941년 현역으로 다시

복귀하여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전후에는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이 되어 일본을 사실상 통치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연합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다.

그는 전략, 전술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을 뿐 아니라 높은 학식과 교양을 갖춘 뛰어난 용병가였다. 또한 대담한 군인이었고 멋을 즐기는 멋쟁이기도 했다. 꾸깃꾸깃한 모자와 옷차림에 옥수숫대 파이프, 그리고 라이반 안경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 존경도 받았고 심지어는 증오를 받기도 했지만 적군조차도 그의 전략적 독창성과 우수성, 탁월한 전술과 백전백승의 능력을 이구동성으로 칭송했다.

##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1957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인천 자유공원에 세워졌다. 최근 일부 사회단체들이 맥아더는 한국 전쟁 때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전쟁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동상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정구 교수는 인터넷 매체에 ‘맥아더는 38선 분단 집행의 집달리였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실었다.

강 교수는 “6·25전쟁은 북한이 벌인 통일 전쟁이자 내전이다. 만약 남의 집안 싸움인 통일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고 사상자는 많아야 남북한 합쳐서 1만 명 미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약 399만 명이 더 많이 죽게 되었다. 미국만 없었다면 북쪽 주도의 통일 정부, 사회주의 계파의 연립정부가 들어섰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됐고 잘못됐고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역사에 가정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강 교수의 주장대로 북한이 적화통일을 했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상해 본다. 훨씬 더 큰 희생과 고통의 비극을 겪게 됐을 것이 분명하다. 극심한 가치관의 혼돈이 격정스럽다. Ⓜ



알립니다

##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공군인들의 종합교양지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수기나 문예작, 사진작품, 기타 일상생활에서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모집분야 :
- 사진 : 앞뒷면 표지, 공군은 지금
  - 원고 : 화제의 공군인, 부대/부서탐방, 테마가 있는 나들이(기행문), 동아리 마당, 장병문예(시·소설·수필), 독자마당 등



- 응모대상 : 제한 없음.    \* 공군가족 및 예비역 원고 환영
- 응모기간 : 연중 계속
- 분 량 : - 사진 : 4×6 이상 혹은 디지털이미지(JPG : 500Kb 이상)
- 원고 : 원고지 10매 내외(A4용지 1.5 ~ 2매), 관련 이미지
- \* 간단한 약력과 주소 및 연락처, 계좌번호 명기

보 낼 곳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문화홍보과 「공군」 담당(우편번호 321-929)

E-mail : (인터넷) afzine@airforce.mil.kr, (인트라넷) minjkang@af.m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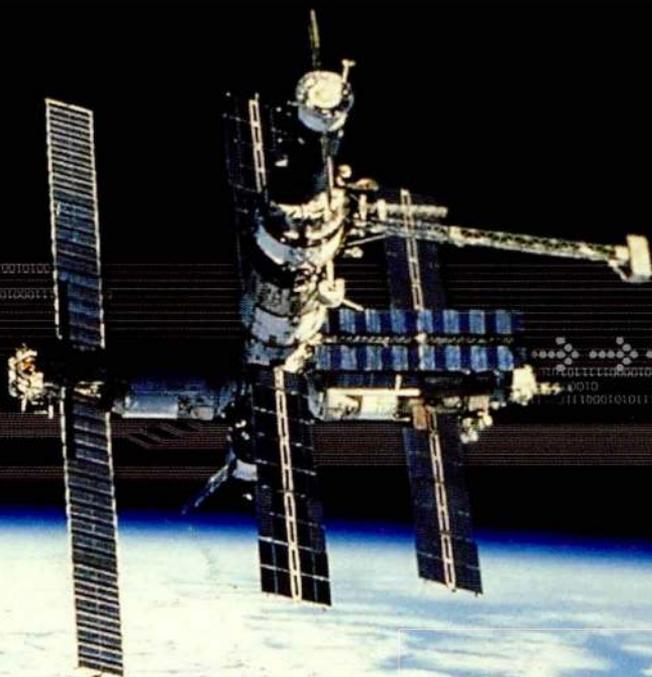
문 의

02)506-6233, 호)6233



제8회 공군력 국제학술회의

# 세계적 국방개혁 추세와 Global Trend of Military Reformation and Choice of Korea **한국의 선택**



■장 소■  
그랜드힐튼호텔

■일 시■  
2005. 9. 8 (목)

■주 최■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후 원■  
공군본부